

故 이한기 수집 자료

학술 조사 보고서

2004. 6

시흥문화원



故 이한기 수집 자료

학술 조사 보고서

2004. 6

시 흥 문 화 원

제 출 문

시흥시장/시흥문화원장

본 보고서를 목록집과 함께 '故 이한기 선생 수집자료 2차
목록작업'의 최종 성과물로 제출합니다.

2004년 6월 일

경기지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 주 혁

<자료 조사단>

▣ 자 문 위 원

- 서영대(인하대 사학과 교수, 인하대 박물관장)
- 안병우(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경기기록문화포럼 대표)
- 이영호(인하대 사학과 교수,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 이해준(공주대 사학과 교수)
- 정광순(중랑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 정승모(지역문화연구소 소장)
- 주강현(한국역사민속학회 회장, (재)한국민속연구소 소장)

▣ 자료 조사원

- 주 혁(책임연구원/경기지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
- 허홍범(팀 장/경기지역사연구소 연구원, 경희대 강사)
- 차선혜(연구원/경기지역사연구소 연구원, 경희대 강사)
- 김현석(연구원/인하대 강사)
- 홍현영(연구원/시흥시사편찬위원회 책임연구원)
- 김영극(연구원/한신대 석사 수료)
- 민현미(연구원/외국어대 기록학 석사 졸업)
- 윤어현(연구원/외국어대 기록학 석사 졸업)
- 김영준(연구원/인하대 사학과 석사과정)
- 기경량(연구원/서울대 국사학과 석사과정)
- 한정아(연구원/인하대 사학과 졸업)
- 구수정(연구원/인하대 사범대 석사과정)
- 유명은(연구원/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졸업)
- 김민석(연구원/한양대 사학과 대학원)
- 신대원(연구원/한양대 사학과 대학원)
- 박정환(연구원/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졸업)
- 최경미(연구원)

◆ 차 례 ◆

I. 조사 개요	5
I-1. 조사 목적	5
I-2. 작업 방침 및 추진 일정.....	5
I-3. 조사 성과와 한계.....	7
II. 분류 항목과 기준	9
II-1. 분류 항목	9
II-2. 항목별 분류기준.....	13
III. 평가 및 향후 활용방안	33
III-1. 자문위원 평가.....	33
III-2. 향후 활용방안.....	35
【부록 1】 이한기 연보	37
【부록 2】 이한기 자료 수집 관련 신문 기고문	47

1. 조사 개요

I . 조사 개요

I -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고 이한기(필명 이승언) 선생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자료의 기초자료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함으로써

- 이한기 소장 자료의 기본적인 분류(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와 목록 작업을 통해 그 기본적인 성격을 파악하고
- 목록 작업을 통해 나타난 이한기 소장 자료의 학술적·대중적·교육적 가치와 함께 생활사·미시사·지방사라는 영역 속에서 그 자료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 또한 소장자료를 인수한 시흥시청과 문화원이 이한기 선생의 유족에게 지불할 보상액수의 근거를 산출함과 동시에
- 수집된 각종 자료에 대한 유형별, 주제별 목록작업을 통해서 향후 다양한 전시 자료로 제공하여
- 지방분권화가 보다 강조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문화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다양하고 깊이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I -2. 작업 방침 및 추진 일정

다음은 이한기 선생(시흥시 전통문화유산보존위원회 상임위원)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자료에 대한 목록작업 전체 일정을 살펴 본 것이다. 먼저 작업 현황을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 기 간 : 1차(2003. 3~5월 말)/2차(2003. 12~2004. 5월 말)

- 장 소 : 시흥시청 지하 1층 전시실 및 시흥문화원 2층 자료실
- 조사대상 : 시흥시 향토사료실 보관 자료, 이한기 선생 유족 소장 자료
- 조 사 자 : 주혁(책임연구원), 허홍범(팀장) 외 연구원 15명

1. 작업 방침

- 故 이한기(李漢基, 1945.4.10~2002.1.20, 필명-承彦) 선생 수집자료 중 향토사료실 소장 자료 목록작업에 이어 유족 보존 자료의 목록 조사작업을 진행하여 수집자료 목록의 완결성을 추구
- 한국사, 기록학 분야의 전문연구자들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효율적, 체계적 목록작업 실시
- 기 구성된 자문위원회(한국사, 민속학, 기록학 등 사계 전문가로 구성됨) 회의를 개최하여 (고)이한기 선생의 수집자료에 대한 가치평가와 함께 지역문화정책 수립, 교육 및 전시회 등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2. 추진 일정

○ 다음은 이한기 수집 자료 전체에 대한 목록작업 전체 일정을 정리한 것이다.

추진 일자	내 용	비 고
03. 2.14(금)	이한기 수집자료 목록작업 논의	문화진흥과장, 계장, 문화원장, 사무국장, 기념사업회 관계자/문화원장실
03. 3.11(화)	1차 목록작업 시작	조사단(책임연구원 주혁 외 7인)
03. 5.30(금)	1차 목록작업 종료	
03.12.10(수)	이한기 선생유족 소장자료 인수	수원 화서동, 과천문화원 방문
03.12.15(월)	2차 목록작업 시작	조사단(책임연구원 주혁, 팀장 허홍범 외 4인)
04. 3.17(수)	1차 자문위원 회의	자문위원 6명 외 관계자, 시장님과 다과/시청 2층 회의실
04. 4월 말	2차 목록작업 종료	
04. 6.23(수)	자료조사 목록집 발간 및 2차 회의(최종 가치평가) 개최	자문위원 6명 외 관계자/문화원 2층
04. 6.30(수)	최종 학술조사보고서 발간	조사단 전체

* 비고 : 위 표의 '1차 목록작업'은 시흥 향토사료실 소장 자료분이며, '2차 목록작업'은 이한기 선생 유족 소장 자료분을 의미한다.

I -3. 조사 성과와 한계

본 이한기 수집자료에 대한 목록작업을 통해 조사된 자료량은 총 1만 9,836종, 4만 4,915점(제Ⅰ부 1만 1,268종 2만 3,779점/제Ⅱ부 8,568종 2만 1,136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이한기 선생이 수집한 자료 중 사진자료와 신문스크랩류, 그리고 선거관련 법정 홍보물(포스터, 전단지, 명함 등) 등 수 만건을 작업기간의 제한 때문에 제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수집 자료는 목록작업 결과를 훨씬 상회한다.

목록집에 수록된 자료 중에서 대표적인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45년 간의 일기 및 업무일지(1958~2002.1)
- 잡지 『대한협회보』(1907년 창간호 및 총 8권)
- 창간호①(잡지) 320권(일제강점기~2000년)
창간호②(신문) 106종
- 시군지(290종), 연감 및 통계연보류(390종), 1950~1960년대 교과서(103종)
- 호외류 274종(1941년 태평양발발 호외, 1966년 김기수세계선수권, 1968년 1·21사태, 1971년 실미도사건, 1994년 김일성사망 등 2001년 12월까지의 호외류)
- 1950~1980년대 교육, 방송 관련 문서류 일반 400여종(교칙, 방송프로그램 등)
- 1960~1990년대 후반 팜플렛, 포스터, 표어, 복권, 스티커, 상품선전, 전단지 등 2,000여 종 4,000여 건
- 1950년대 후반~2000년대의 개인생활사 자료(초중고 시험지, 노트, 영수증류)
- 조선후기 상평통보·당백전·당오전 수백 종, 일제강점기~1990년대 담배 수집 종
- 고문헌류(18세기~19세기) 200여권

이들 자료들은 고문헌류 200여권을 제외한다면 한마디로 지난 100년 간의 원시 흥군 지역과 일반 생활사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물증에 다름 아니다.

특히 형태별, 주제별로 다양한 자료를 망라하고 있다는 점, 특정한 주제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수집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까닭에 목록집에 수록된 항목만을 살펴보더라도 자료 전체가 개별적, 파편적 자료가 아니라 해당 자료 전체가

종합적(綜合的)·누적적(累積的)·유기적(有機的)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만큼 향후 학술적, 교육적, 대중적으로 널리 활용될 여지가 많다.

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목록조사 과정에 나타난 한계도 동시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사업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으로 우선, 1차 시흥시 향토사료실 소장분 작업과 2차 이한기선생 유족 소장 자료에 대한 휴지 기간이 길었던 까닭에 작업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중복작업이 불가피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1차와 2차 작업 대상물이 유사한 성격이 없지 않았으나, 별개의 자료가 많았던 까닭에 두 차례에 걸친 목록 작업을 전혀 다른 범주로 설정하여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대분류와 중분류 항목 설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제Ⅱ부 향토사료실 소장분 E 팜플렛이 대분류로 설정된 반면, 제Ⅰ부 유족 소장분에서 E가로 설정된 것은 前者 작업분에서 팜플렛을 제외하고는 後者 작업 대상물과는 달리 포스터, 표어, 전단지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Ⅱ부에서 C 행정문서류를 대분류로 설정하여 다시 7개의 중분류를 설정한 것은 문서류 전체가 모두 중앙부처나 시·군 단위에서 생산된 자료였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제Ⅰ부에서는 행정 문서류를 중분류인 C가로 설정하고 상위 항목인 대분류는 C 문서류로 설정하고 나머지 교육, 방송 등을 중분류로 설정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문제는 1, 2차 목록작업물을 통합하여 한꺼번에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작업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였다. 향후 통합된 기준으로 새로운 목록집이 필요한 것은 이러한 까닭이다.

기나긴 목록작업과 보고서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항시 사람이다. 바쁘신 와중에 회의에 달려오신 자문위원 선생님, 팀장 허홍범 선생을 비롯하여 연구원 전체의 책임감과 자료를 대하는 헌신성에 고개 숙인다. 1년이 넘는 동안 목록작업에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시흥시장님과 문화원장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작업에 행정편의를 아끼지 않으신 문화진흥과 과장님(박태진, 前任 주기수), 계장님(김영식), 그리고 최종복 주사의 지원 또한 절대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조사단과의 수많은 토론 과정에서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일일이 수용해 준 전문위원(김락기)과 문화원 前任 사무국장(추교찬)에게도 마음 속의 술 한잔을 보낸다.

본 보고서 작성은 책임연구원 주혁을 비롯하여 팀장 허홍범, 연구원 홍현영, 김영극, 민현미, 윤여현의 공동집필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II. 분류 항목과 기준

II. 분류 항목과 기준

II-1. 분류 항목

□ 대상

본 『故 이한기 수집자료 학술조사 보고서』는 수집자료의 조사 개요, 조사단(자문위원 및 목록작업팀) 구성, 분류 기준, 분야별 자료의 성격과 향후 활용방안 등을 살펴본 것이다. 그리고 본 보고서와 함께 발간된 『故 이한기 수집자료 목록집』은 이한기 선생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자료 전체를 목록화 한 것이다.

□ 구성

목록집은 제 I 부(2차 목록작업분)와 제 II 부(1차 목록작업분)로 나누어져 있다. 제 I 부는 이한기 선생의 유족이 보존하고 있던 자료를 대상으로, 제 II 부는 시흥시 향토사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제 I 부의 유족 소장 자료는 2003년 12월~2004년 4월까지, 제 II 부의 향토사료실 소장 자료는 2003년 2~5월 사이에 목록작업을 진행하였다. 제 I 부와 제 II 부는 자료의 정리·분류·목록 입력상 조사 시기에 의한 구분이다.

□ 작업 방식

목록작업은 ① 대분류의 확정 → ② 원자료의 분진(粉塵) 제거 → ③ 고유번호를 부여한 원자료에 부전지(附箋紙, 포스트일) 부착 → ④ 목록 입력 → ⑤ 중분류별로 박스에 보존 → ⑥ 입력내용 확인 및 수정 → ⑥ 보고서 작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목록 입력은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향후 자료 활용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를 통해 작성된 목록집의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한기 선생 수집자료 총목록 현황							
제 I 부(이한기 유족 보존 자료, 2차 목록작업분)				제 II 부(향토사료실 소장 자료, 1차 목록작업분)			
대분류	중분류	종수	점수	대분류	중분류	종수	점수
A (단행본류)	A가 연감	67	72	A (단행본류)	AA 사진, 연감	113	124
	ANA 연보	390	431		AB 연보류, 통계연보	89	116
	AC다 향토지	290	372		AC 향토지, 조사보고서	139	141
	A라 교과서	103	104		AD 단행본	388	557
	AM아 일반도서	216	233		AE 전집류	253	367
	AB바 자료집	105	162				
	소 계	1,171	1,374		소 계	982	13,05
B (신문류)	B가 신문류 일반	1,551	3,287	B (신문류)	BA 일간지	67	81
	BL나 창간호	106	190		BB 주간지	485	1,545
	BD다 경기지역신문	404	623		BC 격주간지	129	268
	BL라 호외류	274	2,057				
	소 계	2,335	6,157		소 계	681	1,894
C (문서류)	CG가 행정	577	668	C (행정문서류)	CA 법령, 법규, 지침서	242	425
	CL나 교육	160	239		CB 예산서	146	231
	CC다 방송	139	301		CC 계획서, 기본계획	406	618
	CL라 증빙 및 영수증	403	709		CD 업무보고, 환경평가서	782	966
	CM아 기타	176	552		CE 회의 및 설명자료	641	921
	소 계	1,455	2,469		CF 지도류, 현황도	295	450
					CG 신고서, 신청서	303	3,851
	소 계	1,455	2,469		소 계	2,815	7,462
D (잡지류)	D가 잡지류 일반	2,781	3,379	D (잡지류)	DA 월간지	723	1,482
	DL나 창간호	324	407		DB 주간지/ 격주간지	138	168
	DD다 경기지역관련잡지	316	498		DC 계간지/연간지	287	402
	소 계	3,421	4,284		소 계	1,148	2,052
E (홍보선전류)	EG가 팸플렛	1,607	2,325	E (팸플렛)	EA 시·군 문화제	513	3,093
	EL나 포스터, 표어	19	40		EB 사회단체 행사	719	1,569
	ED다 전단지	361	1,074		EC 홍보선전물	361	2,102
	소 계	1,987	3,439		ED 선거관련 자료	107	232
					소 계	1,700	6,996
F (박물류)	FG가~라 시상/수상물, 사무용품, 간판 및 안내판, 생활용품	315	2,970	F (박물류)	FA 명패류	270	296
					FB 기념패, 메달류	18	21
	소 계	315	2,970		FC 깃발, 수건류	65	144
					FD 사무용품류	83	107
					FE 일상용품류	34	63
	소 계	315	2,970		소 계	470	631
G (고문헌류)	GG가 고문서			G (고문헌류)	G가 고문서	93	93
	GL나 고 서				GL나 고 서	113	113
	GD다 탁 본				GD다 탁 본	155	156
	GL라 기관소장 복사본				GL라 기관소장 복사본	411	434
	소 계				소 계	772	796
H(이한기 집필자료)	H가 집필/저서류	48	48				
	HL나 원고/ 수고	57	113				
	HD다 일기/ 일지	51	51				
	HL라 수집목록/ 메모	22	34				
	HL마 학습 노트/장부	95	95				
	소 계	273	341				
I (서관류)	IG가 편 지	47	619				
	IL나 연하장	33	354				
	ID다 초청장	193	1,197				
	IL라 엽 서	25	234				
	IL마 기타	13	341				
	소 계	311	2,745				
I 부 목록 합계		1만 1,268종	2만 3,779점	II 부 목록 합계		8,568종	2만 1,136점
총 계		1만 9,836 종, 4만 4,915 점					

□ 분류 체계

제 I 부 유족 소장 자료와 제 II 부 향토사료실 소장자료는 자료군(資料群)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 I 부는 9개 유형으로 제 II 부는 7개 유형으로, 대분류하여 구분한 후 중분류로 세분하였다. 소장자료 중 시청각류(사진, 테잎, 동영상 등)와 신문스캐랩, 선거관련자료 등은 작업일정을 고려하여 본 목록작업에서는 제외되었다. 향후 목록화작업을 진행하여 '故 이한기 수집자료 목록' 작업이 완결되기를 기대한다. 자료의 대분류 체계를 간략하게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분류체계	제 I 부(2차 목록작업분)	제 II 부(1차 목록작업분)
대분류	A 단행본 B 신문류 C 문서류 D 잡지류 E 홍보·선전물류 F 박물류 G 고문헌류 H 이한기 집필자료 I 서간류	A 단행본류 B 신문류 C 행정문서류 D 잡지류 E 팜플렛 F 박물류 G 고문헌류
	9개 대분류 체계	7개 대분류

비고 : G 고문헌류의 경우 기 목록집에는 제 I 부에 수록되었으나 본 보고서에는 제 II 부로 이동함. 제 I 부의 대분류 항목에는 체계상 그대로 두었음을 밝힌다.

□ 분류 세부항목

일련 번호	박스 번호	분류번호	명칭	연월일	크기 (cm, 세로×가로)	점수 (쪽수)	수량	저자 (발급자)	출판사 (수급자)	비고
00001	001	A가-0000 1								

□ 분류 항목 설명

분류항목은 총 10개 항목이다. 이를 순서대로 적시하면 박스번호, 분류기호(제 I 부의 경우 중분류기호와 분류번호), 명칭, 생산일자, 크기, 점수(쪽수), 수량, 저자(발급자), 출판사(수급자), 비고 등이다. 원작업에서는 비고란에 입력일자를 명기하였으나, 본 목록집에서는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해당 항목의 상세한 기술(記述) 원칙은 학술조사 보고서에서 다루었다. 각 항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박스번호’는 자료를 분류·정리한 박스 단위의 일련번호를 의미한다.
- ‘분류기호’는 대분류의 하위단위로써 자료의 유형을 보다 세분한 것이다. 분류기호는 제Ⅰ부는 ‘알파벳 대문자 1 자리+가나다 1 자리’와 ‘아라비아숫자 5 자리’의 고유번호로, 제Ⅱ부의 경우 ‘알파벳 대문자 2 자리-아라비아숫자 5 자리’를 부여하여 1, 2차 작업을 구분하였다. 목록의 입력은 중분류에 의한 자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가나다순, 생산일자순, 무순(無順) 등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입력하였다.
예) 제Ⅰ부의 경우 : A가, 10001, 제Ⅱ부의 경우 : AA-00001
- ‘명칭’은 자료의 원문 표기를 그대로 따랐다. 예를 들어 원자료의 명칭이 한자로 표기된 것은 한자로, 한글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리고 원자료의 명칭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자료의 성격을 보다 잘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Ⅰ부는 명칭 다음의 () 안에, 제Ⅱ부는 비고란에 내용을 적어 보완하였다.
- ‘생산일자’는 확인 가능한 것은 그대로 표기(例:1997-02-24)하였다. 출판물의 경우 인쇄일과 발행일 가운데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생산일자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의 추정은 () 안에 적시하였고, 확인불가능할 경우 0000-00-00 혹은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 ‘크기’의 단위는 cm이며, 표기는 세로×가로이다. 제Ⅰ부에서는 소숫점 아래 한 자리를 반올림하여, 제Ⅱ부에서는 소숫점 아래 한 자리까지 표기, 처리하였다. 다만 제Ⅰ부에서 G고문헌류 중 ‘G가 고문서’와 ‘G나 고서’는 소숫점 한 자리까지 표기하였다. 그리고 ‘G나 고서’는 필요한 경우 반곽(半郭)과 광곽(匡郭)을 표기하였으며, ‘G다 탁본’은 높이×길이×폭 순으로 표기하였다.
- ‘점수(쪽수)’는 전근대 성책류(成冊類)와 근현대 행정문서를 포함하는 문서류, 박물관류는 점수(點數) 및 장수를 의미하며, 서책류의 경우에는 책수와 쪽수를 의미한다.
- ‘수량’은 해당 자료의 복본을 포함한 총수를 의미한다.
- ‘저자(발급자)’ 및 ‘출판사(수급자)’는 서책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고문서나 문서류의 경우 발급 주체와 수급자를 의미한다.
- ‘비고’는 자료의 보존(훼손) 상태, 이한기 선생의 수집 관련 표기사항, 그리고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부연 설명을 적시하였다.

II-2. 항목별 분류 기준

다음은 본 보고서와 함께 작성된 목록집의 내용 중 제 I 부(2차 목록작업분)의 분류기준을 대주제 중심으로 그 현황과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다. 여기서는 수집 자료를 형태별, 내용별, 그리고 수량 등을 고려하여 먼저 대분류를 설정하고 다시 중분류를 설정하여 수집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9개 대분류에 따른 항목별 분류기준과 특성을 서술하기에 앞서 밝혀둘 점은 이한기 유족 보존 자료, 향토사료실 소장 자료 모두, 즉 목록집의 제 I 부와 제 II 부 전체를 대상으로 그 분류기준을 설명해야 할 것이나, 본 서술에서는 이한기 선생 유족 소장본 자료를 중심으로 그 기준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본 목록조사 작업의 초점이 유족 소장본 자료의 수량, 성격, 가치, 향후 활용방안 등에 있었기 때문이다.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이한기 선생의 사망이 급작스러웠던 까닭에 위에서 언급한 제 I 부 이한기 유족 보존 자료와 제 II 부 향토사료실 소장 자료의 경계가 매우 모호했다는 점이다. 이한기 선생은 항시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그 자료를 통해 자택이나 향토사료실에서 일상적으로 집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 I 부에 수록될 자료가 제 II 부에, 그 반대로 제 II 부에 수록될 자료가 제 I 부에 수록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제 I 부에 수록된 G 고문헌류에 수록된 탁본류의 경우 상임위원으로서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 II 부에 수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향토지의 경우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일일이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적지 않다.

이렇듯 목록집 제 I 부의 '이한기 유족 소장 자료'에 수록된 자료의 실제 소장처에 대해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목록집 전체에 수록된 자료 모두가 이한기라는 일 개인의 목적의식적 수집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보다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향후 이한기 수집자료의 전체 성격과 그 의미는 통합 목록이 만들어진 이후의 일로 남겨두고, 이제 이한기 수집자료에 대한 분류기준 및 특성, 가치, 성격, 향후 활용방안 등에 주목해보자.

□ 「A 단행본」 분류기준 및 특성

(고) 이한기 선생이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은 기록물이 지닌 성격으로 총 6개의 중분류 항목인 연감, 연보, 향토지, 교과서, 일반도서, 자료집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목록 작업 결과, 총 1,171종, 1,374점이 조사되었다. 중분류에 속하는 각 항목의 자료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중분류 항목	연감 (A가)	연보 (A나)	향토지 (A다)	교과서 (A라)	일반도서 (A마)	자료집 (A바)
총 건수 (점수)	67 (72)	390 (431)	290 (372)	103 (104)	216 (233)	105 (162)

연감 및 연보는 각 시군에서 일년 동안에 일어난 사회 전반의 모든 사항에 대한 주요 자료 및 통계 등을 요약 정리하여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해마다 간행되는 단행본이다. 이한기 선생이 수집한 연감 항목에 속하는 기록물들은 경기신문사, 경인일보사, 인천신문사, 연합통신 등 언론 기관에서 발행된 연감 및 요람과 경기도 내의 안양상공회의소에서 출판한 기업체 명단, 지정문화재 목록 그리고 문화재관리연보가 주를 이룬다. 이 항목에 속하는 연감 및 요람은 1965년에 인천신문사에서 발행한 경기연감 제1호부터 1998년도에 발행된 경기연감 제33호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며 경기도의 행정구역 변천, 연혁, 인물, 유적·유물, 지명유래, 전설, 민요 그리고 생활경제활동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시대의 사회상황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만한 가치를 지닌 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단행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연보는 1960년 소래면에서 발행된 '面勢一覽'과 1956년 발행된 '道勢一覽'에서부터 경기도 각 시군에서 발행된 통계연보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내의 지역에서 발간되어진 통계연보는 각 시군의 인구, 보건, 산업, 재정 토지 등에 관한 기본상황과 통계 등을 담고 있어 해당지역의 전체적인 변화상황을 파악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연보 항목에서는 '군'에서 '시'로 언제 승격되었는지 승격 시기와 함께 승격으로 인해 통계연보 호수와 발행처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목록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보가 가지는 특징은 경기도 내의 각 시군의 지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한기 선생이 수집하여 소장한 교과서는 본인의 중·고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친지들의 것들로 1950년대 초부터 1960년대 말까지 발행된 교과서가 주를

이룬다. 이한기 선생이 학교를 다니던 시기의 교과서에는 가격표시가 되어 있어 본인 스스로가 교과서를 구매하여 학업에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사회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은 시기여서 재정적으로 교과서의 구매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는 교과서의 대물림이라는 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냈음을 수집된 교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한기 선생이 수집한 교과서를 통해 현재의 교육과정에 있기까지 공공교육의 교과과정이 어떠한 흐름으로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교육내용이 어떻게 변천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일반도서 항목으로는 시집, 수필, 소설, 자서전 및 역사 도서, 기관과 단체들의 편찬사, 건강 도서 등 매우 다양하다. 수집한 도서들을 볼 때 이한기 선생이 어떠한 책을 즐겨 읽었는지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읽었던 책들을 통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졌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일반도서에서는 1910년에 발행된 '西洋歷史'와 1926년에 발행된 '朝鮮語の先生'뿐만 아니라 1940년 후반부터 1960년 초까지 발행된 모든 단행본들을 주로 1969년~1971년까지 수집하여 보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료집의 항목은 경기지방 전통문화 세미나에서 발표한 글부터 근현대사 지방사료와 관련된 논문, 향토문화제 및 향토사연구 학술 발표회의 자료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이한기 선생이 각 지방사에 관련된 세미나나 학술대회에 꾸준히 참석하여 수집한 자료들로 지방사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집은 후대의 지방사 연구에 있어 참고 및 활용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 「B 신문류」 분류기준 및 특성

‘신문류’에 포함된 수집 자료들은 중앙일보를 비롯하여 흔히 중앙지로 대변되는 일간지 10여 종의 「신문류 일반」, 각종 신문의 「창간호」, 시흥·수원·안양·군포·안산 등 경기도 지역에서 발간된 「경기지역 신문」, 그리고 사건·사고나 큰 행사가 있을 때 나오는 「호외류」 등으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목록 작업 결과, 신문류 일반(총 1,551종, 3,287점), 창간호(총 106종, 190점), 경기지역 신문(총 404종, 623점), 호외류(총 274종 2,057점) 등 총 2,335종, 6,157점이 조사되었다. 종수보다 점수가 적게는 2배에서 8배에 달하는 이유는 동일한 호수에 대한 복본이 다수를 차지하거나 일련 신문을 한 항목으로 묶어서 처리했기 때문이다.

목록집에 수록된 신문류의 경우 이한기 선생 수집 인생의 출발이 신문 수집에 있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평생 수집한 신문의 대부분은 보존 장소 문제, 홍수로 인한 보관 신문의 유실 등의 요인으로 상당 부분 폐기되고 말았다. 다만 일제강점기에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건 및 사고 등을 알리는 호외류, 元 시흥군 지역에서 발간된 지방지와 지역지, 중앙일보·한겨레신문 등을 비롯한 중앙지·지방지·지역지 등의 창간호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리고 신문류 수록 대상물 중 5개 박스 분량의 ‘신문 스크랩’이 있었으나 목록 대상으로 잡지 못했음을 밝힌다. 스크랩 자체가 신문의 1개 면 혹은 기사 1개를 올려서 보관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개별은 물론 몇 개 분야로 나누어 묶어서 처리하기에라도 힘들만큼 다양했기 때문이다. 스크랩의 주요 내용은 본인이 향토사학자였던 만큼 인물, 유형 및 무형 문화유산, 행정구역, 지명유래, 지역 소개 일반, 본인 인터뷰 기사 등이 주종을 이룬다. 대상 시기는 1970년대 이후 것이 대부분으로 신문 기사에 나타난 한국 혹은 경기도 향토문화 일반과 관련하여 시기별, 주제별, 형태별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수록원칙의 문제로 신문과 잡지 구분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00신문'이거나 '00지' 또는 '000보'로 끝나는 것은 신문으로 규정하고 그 이외의 것은 잡지로 구분해서 분류하였다. 또한 신문에서 잡지로 변경되거나 잡지에서 신문으로 변경될 시 이런 신문과 잡지류의 경계선은 최종적인 마무리 형태로 결정해서 신문과 잡지로 분류해서 등록하였고,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기재, 적시하였다.

□ 「C 문서류」 분류기준 및 특성

이 곳에 수록된 '문서류' 일반은 향토사료실 소장분 목록작업분에서 설정한 대분류 '행정문서류'의 명칭을 수정한 것이다. 중분류는 '행정', '교육', '방송', '증빙 및 영수증자료', '기타' 자료로 5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교육'에는 시험지, 성적표, 학칙, 동창회주소록 등이 포함된다.

문서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업무의 부산물로 생산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수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집자체가 목적인 여타 수집물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문서는 대상의 활동, 업무의 영역과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본 사업에서 정리한 문서의 경우도 이와 같은 성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한기 개인의 역사와 더불어 그가 관여했던 각종 단체와 업무에 대한 개관을 제공하고 있다.

문서류에 대한 목록작업 결과 행정(총 577종, 668점), 교육(총 160종, 239점), 방송(총 139종, 301점), 증빙 및 영수증(총 403종, 709점), 기타(총 176종, 552점) 등으로 총 1,455건에 2,469점에 달한다.

분류는 주제 및 성격에 따라 이루어졌다. 우선 실물을 직접 조사한 후 구분할 수 있는 주제를 논의하여 “C가 행정, C나 교육, C다 방송, C라 증빙 및 영수증, C마 기타”의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이는 이한기 선생의 생애에 비추어 관련을 맺은 분야를 반영한 것으로 그 틀은 주제별 분류라고 할 수 있으나 문서의 특성상 이러한 분류를 통해 생산자 및 생산시기의 구분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주류를 이루는 행정문서는 공공기관뿐 아닌 각종 단체나 조직에서 행정업무의 진행에 따라 만들어진 문서를 포함시켰다. 이는 행정의 의미를 국가기관에서 법에 따라 행하는 업무라는 좁은 의미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조직의 공적인 업무수행이라는 넓은 관점에서 본 것이다. 중분류 중 교육항목은 시험지가 주류를 이루며 동창회 관련 문서 또한 포함시켜 교육을 주제로 하는 기록물이라기 보다는 이한기 개인이 교육분야와 관련한 활동 과정에서 획득한 기록물로 구성하였다. 방송항목은 각 방송국에서 만들어진 방송시간표와 각종 안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방송작가로 활동하였던 기간 중에 개인활동과 관련하여 획득한 기록물도 포함시켰다. 증빙 및 영수증은 다양한 출처의 각종 영수증과 증명서, 증빙문서 등을 포함하였으며 기타항목은 참고용으로 복사하여 소장하고 있던 자료를 비롯해 생산자와 생산시기, 수집맥락 등을 알기 어려운 기록물이 해당된다.

행정 항목에는 주로 향토사 편찬 및 각종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정사항과 회의자료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각종 시군지 편찬과정에서 이루어진 협조사항과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지역관련 통계사항, 참여한 각종 위원회의 사업계획과 과정, 결과자료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업무 맥락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지만 개인이 획득할 수 있는 행정기록물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기관이나 조직의 전반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이한기 개인이 관계한 부분의 정보로 한정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교육문서에는 이한기 본인의 학창시절 시험지를 비롯 소성고등공민학교 교사로 재직 당시 학생들의 시험지가 남아있으며, 가정통신문 및 수업시간표, 육성회 자료 등 시기별 교육환경과 상황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동문회 관련 안내문과 회의 자료 현황자료 등이 남아있어 해당 동문회의 활동 전반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방송문서는 각 방송국 프로그램의 편성표가 주류를 이루는데 60년대 초반부터 90년대까지의 라디오 및 TV방송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 방송의 추이와 변천을 파악하는데 근거자료로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빙 및 영수증에는 개인의 역사를 한눈에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각종 고지서와 통지서 영수증 등을 비롯 급여지급 내역이나 통장, 증서 등 경제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기록물 또한 남아있다. 이와 같은 기록물들은 내용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증빙 양식의 변천 또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다양한 출처와 형태, 연대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류들은 증빙적으로나 정보적으로나 적지 않은 가치를 갖는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정보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것이므로 보다 정교한 분류체계와 검색도구를 통해 연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군지 등의 향토지 편찬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수집자가 이미 정보원으로 사용한 바 있는 기록물을 통해 지역사 연구자들의 연구편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며 교육과 방송 분야 등을 아우르는 귀중한 연구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한기 개인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할 것이 문서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 뿐 아니라 일반인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방송편성표나 각종 증빙 양식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시 등을 통한 관심유도에도 적절한 자료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 「D 잡지류」 분류기준 및 특성

잡지류(D)는 'D가 일반잡지', 'D나 창간호', 'D다 경기지역 관련 잡지'로 분류하였다. 이한기가 1977년 9월 4일에 안양 신문에 기고한 글 "蒐集열전-蒐集에 미친 20년의 歷程①"에서 밝혔듯이, 잡지류는 그의 수집 인생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경기지역 관련 잡지'는 향토사가 이한기를 부각시키기 위한 분류이다. 향토사라는 말은 이한기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한기 본인이 목적의식적으로 수집한 '창간호'와 향토사가로서의 이한기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경기지역 관련 잡지', 그리고 '잡지류 일반'로 나누었다.

목록작업 결과, 잡지류 일반(총 2,781종, 3,379점), 창간호(총 324종, 407점), 경기지역 관련 잡지(총 316종, 498점) 등으로 총 3,421종, 4,284점이다.

잡지류 일반으로는 구한말에 발행한 『大韓協會報』부터 2000초까지 발행된 잡지까지 포함되고 있다. 구한말의 『大韓協會報』, 일제 강점기의 『靑春』, 『청년』, 해방공간의 『春秋』, 『大潮』, 『新天地』, 『進學』, 한국전쟁이후의 『자유의 벗』, 『자유세계』, 『새힘』, 1960년대의 『재건설』, 『재건통신』, 1960년초에서 1970년초의 『농촌과 원예』, 『새농민』, 『농촌지도』 등의 잡지는 발행된 시기의 사회상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그리고 『주간조선』, 『주간중앙』, 『주간한국』 등은 196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까지의 시기를 관통하고 있는 자료이다.

『한겨레신문』 2004년 4월 28일자 사회면에는 "주간지·광고전단도 문화재"(노형석 기자)라는 글이 실려 있다. 기사내용은 『선데이 서울』 등 1960~1970년대 대중잡지의 가치가 인정이 되면 문화재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예를 들어 잡지류 일반 중 『선데이 서울』 35권(창간호는 1968년)이 있는데, 이는 1970년대 사회상과 문화생활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창간호는 1908년에 발행된 『大韓協會報』 제1호에서부터 2000년에 발행한 『소금창고』 창간호까지 포함되어 있다. 창간호를 중분류한 이유는 이한기가 창간호를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집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잡지의 처음 발행한 일자와 그 시대는 중요한 관련이 있다. 잡지의 창간호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 될 것이다.

경기지역 관련 잡지는 경기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사학자 이한기의 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본인의 주 활동무대였던 시흥을 비롯하여 주로 경기도의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수원, 안양, 안산, 화성 등지에서 발간된 잡지를 집중적으로 수집

하였다. 그러나 경기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京畿』, 『경기교육』 등도 수집함으로써, 나무는 보지만 숲을 보지 못하는 부분의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 「E 홍보·선전물류」 분류기준 및 특성

홍보·선전물은 개인, 기업체, 각종 사회·문화단체,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등에서 자신들의 특정한 목적이나 활동내용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인쇄물이다. 목록작업의 결과, 총 1,987종, 3,439점이 조사되었다.

홍보·선전물류는 수집자의 의도, 자료수집의 연속성, 자료의 관리나 활용, 목록작업의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중분류 항목으로 팜플렛(1,607종, 2,325점), 포스터·표어(19종, 40점), 전단지(361종, 1,074점), 선거관련 법정자료 등 4가지로 구성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홍보·선전물의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다만 수천 점에 달하는 최근 20~30년 사이의 주요 '선거관련 법정자료'는 작업 공기를 고려하여 다음 차수로 미루었음이 매우 안타깝다.

이렇듯 짧은 작업 기간에 전체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분류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자료들이 팜플렛류로 분류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작업에서는 활용방안과 연계한 보다 세부적인 분류가 필요하다.

홍보·선전물류는 이한기 선생의 개인적 이력과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료의 성격은 시기에 따라 일정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대체로 1970~199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1970년대 자료가 전체 홍보·선전물에 1/3이 넘는 781건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 순으로 많다.

제작시기별 홍보·선전물 현황

시기	팜플렛	포스터·표어	전단지	계
1950년대	1	0	0	1
1960년대	106	1	44	151
1970년대	645	9	127	781
1980년대	320	3	40	363
1990년대	278	2	27	307
2000년대	93	0	19	112
미상	164	4	104	272
계	1,607	19	361	1,987

제작시기별 홍보·선전물의 주요 분야

시기	수집자료의 주요 분야
1960년대	산업, 도서목록, 예술
1970년대	산업, 도서목록, 예술, 체육, 국가시책, 정치유인물
1980년대	지역 문화·예술, 지역축제, 민속, 정치유인물
1990년대	지역 문화·예술, 지역축제, 민속,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2000년대	지역 문화·예술, 지역축제, 민속,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홍보·선전물의 주요 제작처

분야	주요 제작처
지역	경기도, 고양, 과천, 광명, 군포,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용인, 의왕, 의정부, 화성, 서울특별시 등
금융기관	경기은행, 국민은행, 농협, 서울은행, 제일은행, 중소기업은행, 조흥은행, 평화은행 등
기업체	경북농약공업주식회사, 금성사, 동덕개발주식회사, 서울약품공업주식회사, 유유산업주식회사, 태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 등
출판사	민음사, 민중서관, 범우사, 삼성출판사, 성바오로출판사, 을유문화사, 일조각, 정음사, 현암사 등
방송·언론사	경향신문, 동아일보, 동아방송, 동양방송, 문화방송, 서울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체육단체	대한배구협회,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한탁구협회, 대한테니스협회, 대한핸드볼협회 등
문화단체	전국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부, 한국예총경기도지회,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등
국가기관	문화관광부(문화체육부), 보건사회부, 체신부 등

홍보·선전물류는 수집자료의 시기별 분포와 내용을 통해 살펴볼 때 자료의 성격이 1970년대 이전과 1980년대 이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자료는 산업과 관련된 홍보물이 가장 많은데, 화학·기계·목재·약품·사료·제품 등의 홍보물과 금융상품 안내물이 대부분이다. 특히 1968년 9월에 개최된 제 1회 한국무역박람회에 참가한 업체들의 제작물들이 다수 수집되었으며, 이 자료들은 산업화 초기 한국 산업의 발전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산업 관련 홍보물과 함께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출판 도서목록으로서, 이는 이한기 선생이 수집의 기초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197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수집되었다. 이 시기에 수집된 홍보·선전물은 일부 분야에 한정되는데, 이는 홍보·선전물을 제작할 수 있는 사

회적·문화적 역량이 열악했던 당시 상황이 반영된 듯하다. 또한, 수집가의 자료에 대한 접근로도 아직 다양하게 개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1970년대 자료는 수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풍부하다. 기업체들의 제품 홍보물을 보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 여러 상품들을 볼 수 있어, 서민들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예술 활동에 관한 자료들이 다양하게 수집되었는데, 그 활동 부문도 음악·미술·공예·연극·건축·조각·무용·사진 등 예술의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이 시기에 두드러지게 증가한 자료는 체육 분야이다. 국내외에서 치러진 각종 운동경기와 관련된 팸플릿들은 한국 체육의 변천 과정을 살필 수 있다. 그 중에는 유명선수들의 친필서명이 남겨진 것들도 있고, 체육에 대한 국가의 강한 통제력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도 있다. 한편 국가시책을 알리는 홍보물과 이데올로기 선전용 자료, 민주화운동 자료 등이 있는데, 이들은 정치·사회상을 이해하는 데에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홍보·선전물의 특성은 지역성을 강하게 띠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 시기에 이한기 선생이 지역 문화와 지역사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역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문화·사회단체의 홍보물들이 폭넓게 수집되었다. 특히 경기지역 내 과천·광명·군포·부천·수원·시흥·안산·안양·의왕 지역의 자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내용적으로는 지역예술인들의 전시회·공연 자료와 지역축제 홍보물, 민속 분야 자료들이 주로 수집되었다. 이후 1990~2000년대 자료는 1980년대 자료와 연장선상에 있으며, 지역자치단체의 시정 홍보물과 지역축제 및 관광 안내 자료들이 크게 늘었다.

홍보·선전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정치적·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일부 자료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홍보·선전물들은 수집·연구 자료로서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또한 단기간 사용되다가 쉽게 폐기되어 온 까닭에 자료 축적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홍보·선전물은 이를 제작한 주체들이 자신들의 활동과 그 목적을 가장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시대상·사회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자료들을 연구·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고 이한기 선생의 수집자료 중 홍보·선전물들은 생활사와 지역문화 연구자료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1960년대 이래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료들이 꾸준히 수집되었

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형상화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의식주 습관, 질병과 의료, 경제활동, 도구·공구 등의 변모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제품·상품 홍보물 등을 통해 생활방식과 의식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예술·문화·사회 단체들의 활동 자료들이 집중적으로 수집되었는데, 이들 자료는 지역 문화의 동향과 함께 문화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이 새롭게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홍보·선전물은 시각적 효과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런 시각매체는 교육·전시효과가 높은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자료들의 시기·내용·분야 등 다양한 기준에서 재검토하여 실용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 「F 박물관」 분류기준 및 특성

‘박물관’에는 시상 및 수상물, 사무용품, 간판 및 안내판, 생활용품(담배, 동전) 등이 포함된다.

시상 및 수상물에는 이한기가 생전에 받은 각종 상장, 위촉장, 임명장, 감사패, 수료증 등이 망라되어 있다. 사무용품으로는 명패, 안내판, 달력 등이 있으며, 간판 및 안내판은 시흥군청에서 사용되다가 폐기된 것을 수집해 놓은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일반 시민이 흔히 사용하게 되는 여러 생활용품류이다. 여기에는 우표, 동전, 복권, 입장권, 초대권, 승차권, 통장, 담배, 우표, 명함, Sign지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수집된 박물관 전체는 중분류로 설정하여 다시 분류하기에는 모호한 대상이 많은 관계로 명시적인 중분류를 설정하지 않았다. 크게 시상/수상물, 사무용품, 간판 및 안내판, 생활용품 일체 전체에 대한 목록 작업 결과 총 315건, 2,970점이 조사되었다.

이 중 복권류, 승차권 등을 통해 1970~1980년대의 서민들의 주택 마련 꿈과 경제 생활 패턴을 엿볼 수 있으며, 지금은 발매되지 않은 빛바랜 40여 종의 담배와 표지에 적시된 국가 행사, 정부 홍보 등을 통해 서민의 애환과 시대적인 분위기도 짐작할 수 있다.

□ 「G 고문헌류」 분류기준 및 특성

<편집자 주> : 본 「G 고문헌류」에 해당하는 자료들은 원래 목록집의 제 I 부에 수록되어 있다. 이를 본 보고서에는 제 II 부 시흥시 향토사료실 소장본으로 수록하고자 한다. 이 항목에 대한 분류기준 및 특성은 고문헌류에 대한 해제 사항을 밝힌 것으로 향후 참고로 남기고자 그대로 두었음을 밝힌다.

1. 고문헌류의 수량과 비중도

고문헌(분류기호 G)은 4개의 중분류로 구분하였다. G가 고문서, G나 고서, G다 탁본, G라 기관소장복사본의 구분이 그것이다. 먼저 이들 고문헌류 자료의 종수 및 점수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한기 소장자료 중 고문헌류의 수량

대분류	중분류	종수		점수		비 고
		종	%	점	%	
G (고문헌류)	G가 고문서	93	11.9	93	11.9	大 시흥권 탁본류 규장각, 장서각 소장본
	G나 고 서	113	14.6	113	14.6	
	G다 탁 본	155	20.1	156	20.2	
	G라 기관소장 복사본	411	53.4	434	53.3	
	소 계	772	100	796	100	

위 표에 의하면, 종수와 점수 모두 G라 기관소장복사본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탁본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고문헌류가 차지하는 전체 자료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분량면에서는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고문헌류 자료는 이한기 수집자료 성격의 한 측면을 적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이한기 선생의 삶의 후반기는 경기도 시흥지역 향토사가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길게 언급할 필요도 없이 향토사가이든, 지역사 연구자이든 간에 역사가에게 있어서 사료는 연구의 1차적 대상임과 동시에 역사가가 판단하는 최소한의 근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구나 이한기 선생의 삶의 후반부가

경기지역의 향토사가라는 점은 다른 대분류의 기록물 내용보다도 고문헌류 자료가 가진 중요성을 웅변한다고 할 수 있겠다.

2. 고문헌류의 분류와 정리

고문헌류는 적어도 현재로부터 50년 이상 지난 자료, 즉 일제시기 이전의 자료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고문헌류의 일반적인 분류방식은 서책류를 중심으로 할 경우 동양의 전통적인 분류인 경사자집(經史子集)의 구분이다. 고문서류를 중심으로 할 경우 그것은 고문서, 성책(成冊)고문서, 서책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 이한기 소장 자료에서는 앞의 도표에서 보듯이, 'G가 고문서', 'G나 고서', 'G다 탁본', 'G라 기관소장 복사본'의 4가지로 중분류하였다. 'G가 고문서'와 'G나 고서'는 그리 많은 양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구분을 위한 필요성에 의한 구분으로 성책류는 'G가 고문서'에 포함하였다. 'G다 탁본'은 경기 남부지방의 금석문 탁본을 말하며, 'G라 기관소장 복사본'은 주로 규장각·장서각·국립도서관 고서의 복사본이 대부분이며, 일부 한적류의 가문 소장 복사본류를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고문헌류 중 'G다 탁본'과 'G라 기관소장 복사본'의 크기는 다른 대분류의 크기 표기 원칙과 같이 cm를 기준으로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표기한 반면, 'G가 고문서'와 'G나 고서'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하였다. 이는 고문서와 고서의 경우 다른 기록물과 비교하여 보다 mm까지 표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고문서와의 관련성, 기록물의 보존 상태 여부, 훼손 정도, 서압(署押)이나 도서(圖書)의 상태, 첨부 문서의 유무 등을 '비고란'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입하여 자료를 열람하는 이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분류별 비고란의 기재 사항은 다소 차이가 있다.

3. 중분류별 자료의 성격

다음으로 'G 고문헌'의 중분류 항목별로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G가 고문서'총 93점(93종)으로 고신(告身) 4점, 시권(試券) 3점, 간찰첩 1종, 종정도(從政圖), 그리고 토지매매 문기류와 첩정(牒呈)이나 완문(完文) 등의 국가기관 증빙관련 문서류,

일제시기 영수증류, 수석연 시축(壽席宴 詩軸), 일제시기 임명장, 한말~일제시기 고지도류 등이다.

고문서는 특히 목록의 비고란을 상세히 기입하였다. 고신(告身)의 경우 전문을 수록하는 등 판독 가능한 주요한 내용, 서압(署押)이나 인장(印章)의 개수 및 크기, 훼손 여부 및 지질의 상태, 첩입문서 여부 등을 기재하였다. 고신(告身)은 모두 무과 고신으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의 것으로 편서 집안의 것이다. 그리고 눈에 띄는 주요한 자료로는 ‘연지준지기(蓮池浚地記(庚子 5月 上旬), G가 64041번)’이다. 이는 현재 시흥문화원 1층 시흥향토자료관에 전시중인 『蓮池事蹟』 관련 고문서와의 관련성을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는 강희맹과 관련있는 하중동의 관곡지 준설을 위해 500냥의 송추(松楸)를 매매한 문서로써, 관련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연지의 시기적 추이 및 관리 상태의 변화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G나 고서’는 113종(113점)이다. 고서류는 찬자문이나 명심보감, 소학을 포함하는 4서 3경류의 경전류가 40여책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국조과보(國朝科譜) 등의 방목(榜目)이 4책, 옥편 및 운률서가 10여 책이며, 『新編彙語』 등의 類書가 15책, 각종 시집류 등이다. 이 가운데 『北漢誌』는 활자본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 자료는 숙종대에서 영조대에 이르기까지 북한산성의 수축과 연혁을 기록한 것으로 우측 상단이 충해(蟲害)에 의해 부분적인 손상은 있으나 그리 큰 훼손은 아니다. 작자는 성능(聖能)으로, 1745년에 편찬된 자료이다.

‘G다 탁본’은 155종(156점)으로, 신도비·묘갈·묘표 등 분묘의 석물을 탁본한 것이 대부분이다. 탁본의 특성상 목록집의 표기도 ‘세로×가로×두께(cm)’의 순으로 기록하였다. 탁본이 소재한 지역을 살펴보면 시흥 53종, 의왕 30종, 안산 27종, 광명 16종, 안양 12종, 군포 6종, 과천 5종, 서울(신림동, 국립박물관, 방배동 등) 5종, 화성 1종 등이다. 이러한 탁본의 비문 소재지는 대부분 이른바 대(大) 시흥권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시흥의 권역이 가장 넓었던 시기를 기준으로 한 대 시흥권은 오늘날의 행정구역상 시흥, 안양, 군포, 과천, 의왕, 화성, 안산, 서울시 남부 지역에 걸쳐있다. 이러한 탁본의 소재지 분포는 수집자인 이한기 선생의 경기지역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관심 지역에 해당한다.

탁본은 비문의 특성상 건탁(乾拓)방식이 아닌 습탁(濕拓)방식으로 된 것이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근대 분묘의 석물을 탁본한 것이 대부분이다. 기타 전근대 각자석(刻字石)이나 근현대 기념비류의 탁본은 그리 많지 않다.

한편 이들 탁본류의 자료는 경기금석총람 작업시에 제작된 봉투를 사용하여 보존하고 있었던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봉투의 비고란에 ‘금총’이라고 표기한 것은 40여 종에 이르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 『경기금석총람』 작업에 이한기 선생이 구체적으로 참여하였는지, 또는 『경기금석총람』에 수록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그 보존용 봉투가 『경기금석총람』시 사용한 봉투를 이용한 점이 공통점이라는 점만 지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들 탁본류 자료는 탁본의 완성도라는 측면에서는 편차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선본(善本)은 보존이나 전시회 등의 필요에 의해 선별하여 표구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G라 기관소장 복사본’은 411종(434점)으로 고문헌류의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전부 복사본이다. 비고란에는 해당 기록물의 소장기관 고유번호를 기재하였다. 소장 기관은 서울대 규장각, 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 대부분이며, 기타 일부 문중 관련 복사본이 포함되어 있다. 수량으로 보자면 조선후기 양안류가 37종, 전근대 문집류 67책, 경기지(京畿誌)·경기읍지(京畿邑誌)·기전영지(畿甸營誌)·경기남부지역 읍지류·조선지지자료 등을 포함한 읍지류가 50여 종, 광무년간의 각종기관의 수납관련 성책(成冊)류 20여 종, 일제시기 총독부 발간 경기 관련 각종 발간 자료 40여 종 등이다.

양안류는 광주, 안산, 과천군 양안이 거의 전부이다. 이는 앞의 ‘G다 탁본’에서 언급한 이른바 ‘대(大) 시흥권’ 지역이 대부분 포함되는 것이다. 전근대 문집류는 후재집(厚齋集, 김간), 검재집(儉齋集, 김유), 완당집(阮堂集, 추사 김정희) 등의 복사본이며, 이외에 1846년부터 1905년에 걸쳐 쓴 조병세일기(趙秉世日記)의 복사본도 19책이 있다. 그리고 읍지류는 경기지와 같은 도(道) 단위의 일련의 읍지류 이외에 시흥, 안산, 과천, 광주, 인천 등 경기 서남부 지역의 읍지류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일제시기의 자료는 대부분 총독부에서 발간한 자료들로서, 보고서류나, 경기지역의 기상 측후, 산업·경제, 인명류, 각종 통계류 등을 포함한 자료들이다.

4. 종합적 성격

G 고문헌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주로 경기지역, 특히 서남부지역 관련 자료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자료는 이한기 선생의 향토사연구에 있어서 그 저본자료로

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언급하는 전근대나 일제시기 자료가 이한기 선생의 향토사 연구의 저본 자료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 자료를 통하여 조사단은 지역사 연구 영역에서 대학의 웬만한 연구자 못지않은 자료조사와 수집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이한기 선생이 문헌자료든, 인터뷰 녹취 자료든지 간에 ‘자료에 근거하여 서술한다’고 하는 향토사 서술 원칙에 충실한 연구자였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는 이한기 선생이 집필한 글이나 자료(‘H 이한기 집필 및 자료’)를 시기순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H 이한기 집필 및 자료」 분류기준 및 특성

'이한기 집필 및 자료'에는 이한기 선생이 손으로 직접 쓴 저서, 논문류, 일기, 노트류, 장부, 메모 등 발간된 책자와 수고 형태로 이루어진 모든 것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대분류 항목에 적시한 자료들은 다른 항목들과 다른 분류기준을 설정한 셈이다. 이곳에 수록된 자료들은 대부분 단행본류의 향토지, 문서류 등에 포괄되어야 할 것들이다.

그 이유는 본 학술조사사업이 이한기의 수집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한기 개인의 고민과 의식에도 초점을 두어야 수집된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진행과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한기가 집필한 발간자료를 한 군데 모았다는 최소한의 의미를 넘어서, 직접 작성한 각종 장부와 메모노트 등을 통해 수집가로서의 지난한 과정에 유념함과 동시에 진행형이었던 연구자로서의 삶에 강조점을 두고자 한 것이다.

수록된 자료는 크게 저서류와 수고류로 구분할 수 있으나, 자료수집가이면서 동시에 향토사 연구자로서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할 목적으로 중분류 항목을 '집필 저서류, 원고/수고, 일기/일지, 수집 목록/메모, 학습 노트 및 장부' 등으로 설정하였다.

목록 작업 결과, 집필/저서류(총 48종, 48점), 원고/수고(총 57종, 113점), 일기/일지(총 51종, 51점), 수집목록/메모(총 22종, 34점), 학습노트/장부(총 95종, 95점) 등 총 273종, 341점이 조사되었다.

향후 이한기 집필 및 자료 중 근현대 사료로서 주목할 만 부분은 45년 동안 일관되게 작성해 온 일기류와 일지류에 먼저 눈길이 모아진다. 또한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에 걸쳐 학창 시절의 학습 노트, 각 분야별 상식노트, 그리고 평생에 걸쳐 계속된 자료수집을 위한 목록 노트류 등을 통해서 꼼꼼한 자료수집가로서의 단면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발간된 채 수고로 남아있는 '한국 최고 최대'와 '한국 최초'와 관련된 수고 형태의 자료는 향후 생활사 일반과 관련된 흥미있는 대중서로서 거듭날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전체 학술조사를 통해 드러난 자료목록에 대해 향후 보다 구체적인 해제작업 및 통합 목록집 발간이 필요하다. 이후 수집가로서의 위상, 경기지역 연구자로서의 이한기의 사상세계에 대한 이해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서간류」 분류기준 및 특성

목록집에 수록된 '서간류'는 이한기 선생 본인이 평생에 걸쳐 주고 받은 편지류를 중심으로 가족, 친지, 유명인사 등의 것을 포함한 것이다. 중분류로는 편지, 연하장, 초청장, 엽서, 기타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시기별로는 일제강점기부터 2002년 1월 사망 직전까지이며, 조사 결과 모두 총 311종, 2,745점이 조사되었다. 중분류로 나누어 살펴보면 편지(총 47종, 619점), 연하장(총 33종, 354점), 초청장(총 193종, 1,197점), 엽서(총 25종, 234점), 기타(총 13종, 341점) 등이다.

개별 서간류 1통을 한 항목씩 설정하여 목록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형태와 연대별 등으로 묶음으로 처리하였다.

Ⅲ. 평가 및 향후 활용방안

III. 평가 및 향후 활용방안

III-1. 자문위원 평가

본 조사단의 자문위원(서영대, 안병우, 이영호, 이해준, 정광순, 정승모, 주장현)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자문위원 회의를 통해, 이한기 수집 자료에 대한 목록작업의 결과, 다음과 같은 평가로 의견을 모았다.

○ 먼저, 이한기 선생이 45년에 걸쳐 수집한 자료는 그간 학계는 물론 일반에서도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원으로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둘째, 향후 각 지역의 근현대 자료 수집의 방향과 자료 목록화 작업에 디딤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 셋째, 이한기 선생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자료는 근현대 시기 생활사의 물증으로 학술적, 교육적, 지자체의 문화정책 등에 있어서 다양한 활용가치를 지닌다.

○ 넷째, 비록 본 목록작업에서 제외되었지만 수 만점에 달하는 사진자료는 새로운 영상자료로서 매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한기 선생이 수집한 자료에 대한 보상액 산정 기준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이한기 수집자료는 '진품명품' 식의 가치나 인터넷 옥션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개별 단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歷史的' 잣대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둘째, 이한기의 수집자료들이 대상 범위의 다양함에서도 괄목할 만하지만, 수십 년간 지속된 향토사연구의 경험에서 비롯된 자료의 선별 능력과 의식이 바탕되어

있다는 점이다.

○ 셋째, 각종 특별전과 전시 기획전에 틈틈이 제공된 선생의 수집자료는 일부 유일본도 있지만, 그 보다는 일반인들이 관심 밖에 있었던 자료들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모았다는 열정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 차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 액수를 개별 자료에 대한 물질적 평가로 논하기는 매우 힘들다.

다만 보상 액수를 굳이 산정하자면 이한기 선생이 향토사료실 상임위원으로서의 직책을 갖기 이전, 즉 자료수집에 본격적으로 나섰던 1958년부터 시흥시 공무원이 되기 이전인 1980년대 후반까지 순수하게 자료수집에 몰두했던 약 30년 가까이 자료 수집에 헌신한 바를 매년 1,000만원(자료 구입비, 노동력, 교통비 등) 정도로 책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한기 선생이 평생 수집한 자료는 최소한 2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밝힌다.

서영대(인하대 사학과 교수)	인
안병우(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인
이영호(인하대 사학과 교수)	인
이해준(공주대 사학과 교수)	인
정광순(증랑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장)	인
정승모(지역문화연구소장)	인
주강현(한국역사민속학회장)	인

Ⅲ-2. 향후 활용방안

본 보고서와 함께 기 발간된 목록집은 이한기 수집자료의 의미와 향후 활용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첫 걸음마에 불과할 뿐이다. 망자의 손때가 묻은 수집자료 중 분석의 손길이 미친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자문위원을 비롯한 조사단 전체가 보는 향후 활용방안이다.

첫째, 본 목록작업 및 학술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이한기 수집 자료의 보다 완결적인 목록집 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번에 발간된 목록집에 포함된 자료와 미작업분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해제작업을 동반한 목록집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료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즉 유형별, 주제별로 자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어 해방 이전 시기의 중요 자료 등은 파일링시스템 도입과 공인된 보존 상자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수집 자료에 대해 장단기적인 전시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2003년에 이어 2004년 가을 연성문화제 전시기획(도록, 대상, 주제 등)을 비롯하여 향후 특별전, 상설전시 계획 등 보다 포괄적인 전시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이한기의 수집자료를 향후 어떻게 계승하고 보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목록작업 결과 드러났듯이, 이한기의 수집자료는 근현대 생활사의 물증이라는 성격과 함께 상당 부분은 '시흥시의 지역문화상'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향후 시흥시에서 이한기 수집자료를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 기능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 마련이 선결 과제'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향후 별도의 기념관 혹은 자료관 건립을 통해 이한기 수집자료가 적극 활용될 예정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웹서비스 등을 통해 연구자, 일반 시민, 타지역민 들에게 폭넓게 홍보 및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의 수집자료가 민속학 또는 인류학에서 주목하는 개인생활사의 충실한 자료의 보고이며, 한 개인이 태어나서 가정, 학교, 취직, 결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 개인이 가정, 사회, 국가와 관련되는 인생의 전 과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생생한 생활사자료라 할 수 있다. 소장자료 하나 하나를 살펴다 보면 자신에 대한 애정은 물론이고 남이 살아온 조그만 삶의 과정에도 세세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최근 인문학의 새로운 경향으로 대두된 '미시사/생활사/문화사/지방사'라는 영역에 이보다 더 충실한 기초자료를 찾기 힘들 것이다.

선생의 소장자료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있고, 본인이 설정한 원칙에 따라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향후 본격적인 분석에 이은 사료적 가치와 평가, 그리고 활용의 문제가 남아있다.

우리 눈앞에 근현대 지방사료 수집의 호조건-기록물 관리법 제정 및 시행(1999~2000)에 이어 자료관 설치 예정(2004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기초단체의 시립박물관 건립 증가 추세, 제도적 현실적 필요성 증가, 연구자의 관심 증폭-이 펼쳐지고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근현대 지방사료 수집에서 활용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현실 속에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면서 연착륙 시키느냐이다.

이한기 소장자료의 사례는 향후 기록물법의 시행과 지자체 단위에서 설치될 자료관의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지 않을까 한다.

이제 '문화의 시대'라는 구호는 구호 차원을 넘어 현실 생활 속에서도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지방자치제의 문화 성숙도의 고양과 연결시키려면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숨어있는 의미, 즉 '지방 자료를 얼마나 잘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모아져야 한다. 동시에 발굴된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낱 호기심꺼리로 전략하느냐 아니면 무한한 정신적·물질적 부가가치로 이어지느냐는 남아있는 이들의 몫이다.

【 부록 1】 이한기 연보(年譜)

<편집자 주> : 이 연보는 故 이한기 선생이 2001년 12월에 직접 작성한 것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 자신의 삶을 낱낱이 기록한 이한기 선생은 이 연보를 작성한 후 약 한 달만인 2002년 1월 20일 운명하였다. 참고로 연보상의 '현재'는 선생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시점임을 밝혀둔다.

◆ 姓名 : 李承彦

- 本名 : 李漢基(本貫 : 全州李氏 孝寧大君派, 堂號 : 尙五齋)
父 李潤鶴과 母 金淑鎮(本貫 : 安東)의 3男 1女 중 3男
- 本籍 : 京畿道 始興市 論谷洞 227
- 住所 : 京畿道 水原市 長安區 華西洞 212-6 화서맨션 다동 303호
- 生年月日 : 1945年 4月 10日(陰 2月 29日)
- 住民登錄番號 :

◆ 經歷

- 1979~1980 高麗美術館 代表
- 1985~1988 始興郡誌 常任委員·執筆委員
- 1987~現在 畿甸鄉土文化研究會 研究委員
- 1988.9~12 安山 京一國民學校 名譽教師
- 1988~1990 내고장 安山 常任委員·執筆委員
- 1988~現在 國史編纂委員會 史料調查委員
- 1989~1996 水原 華城行宮 復元推進委員會 調查編纂部長
- 1989~1996 始興市 鄉土史料室 常任委員
- 1990.3~12 漢陽大 民族文化研究所 諮問委員
- 1991~1992 畿甸鄉土文化研究會 常任委員
- 1991~1993 果川鄉土史 常任委員·執筆委員
- 1991~1993 光明市誌 編纂委員·執筆委員
- 1992.3~12 安養市誌 編輯委員·執筆委員
- 1992.4~12 元泰祐志士 事蹟碑建立推進委員
- 1992~現在 始興市 地名委員
- 1992~1995 安山市 鄉土遺蹟保護條例 委員
- 1993~現在 果川市 地名委員
- 1993.5~199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始興·軍浦·儀旺市 名譽鄉土委員
- 1994~1996 韓國歷史民俗學會 會員
- 1994~現在 서울文化史學會 會員·理事

- 1995~1996 水原城(華城)築城200周年紀念事業會 企劃調查部長
 1995~1996 衿川區鄉土文化誌 編纂委員·監修委員·執筆委員
 1995~1997 水原市史 編纂委員·執筆委員
 1995~1997 安山市史 編纂委員·執筆委員
 1995~1996 仁川廣域市文化研究會 學術理事
 1996~1998 京畿道 鄉土史研究協議會 學術理事
 1996~現在 始興市 傳統文化遺產保護委員會 常任委員
 韓國鄉土史研究 全國協議會 專門委員
 1997.2~現在 果川鄉土史研究會 研究委員
 1997.3~1997 安養市 道路名 및 建物符號 附與體系에 관한 研究 諮問委員(國土開發研究院)
 1997.6~12 世界 마당劇 큰잔치 '97京畿/果川' 推進委員
 1997~1998 烏山市史 執筆委員
 1997.12~現在 果川市 鄉土文化 및 遺蹟保護委員
 1998.5~現在 水原市 地名委員
 京畿道鄉土史研究協議會 專門委員
 1999.1~12 漣川郡誌 執筆委員
 1994.4 水原市 道路名 및 建物番號 附與事業 諮問委員
 1999.6~現在 安養市 地名委員
 1999.7 果川市道路名 및 建物番號 附與事業 專門委員
 2000.2 서울시文化財案內板 改善整備委員
 2000.2 京畿道鄉土史研究協議會 理事
 2001.6 서울文化史學會 出版分科委員

◆ 著書

- 1984.5 『왜 安山市이어야 하는가』
 1991.5 『城南盆唐地區 地名由來』, 京畿道·漢陽大 發行
 1992.1 『儀旺의 傳統과 文化』, 儀旺市 發行
 1995.3 『始興의 文化財와 遺蹟』, 始興市 發行
 1995.3 『始興의 人物과 行蹟』, 始興市 發行
 1995.3 『始興의 生活文化와 自然遺産』, 始興市 發行
 1996.2 『韓末·日帝下 水原記事索引集』, 水原文化院 發行
 1996.12 『安養市 地名 由來集』, 새安養會 發行
 1996.12 『始興의 歷史와 行政(사진집)』, 始興市 發行
 1997.12 『始興의 어제와 오늘(사진집)』, 始興市 發行
 1998.12 『始興의 사람들(사진집)』, 始興市 發行
 2000.6 『年表로 보는 軍浦 歷史』, 軍浦文化院 發行
 2000.12 『始興의 生活文化(사진집, 근간)』, 始興市 發行
 『始興의 文化遺産둘러보기(근간)』, 始興市 發行
 『始興의 人物(근간)』, 始興市 發行

◆ 論文

- 1983 安養文化2, 「金殷傳」(이한기)·「衿陽雜錄과 姜希孟」(최초), 安養文化院 發行
- 1984 安養文化3, 「始興行政區域變遷史」, 安養文化院 發行
- 1985 水原文化3, 「水原現代資料 日誌」抗日運動編(1908~1945), 水原文化院 發行
- 水原文化4, 「水原現代資料 日誌」教育編(1896~1945), 水原文化院 發行
- 1985 安養文化4, 「安養의 由來」, 安養文化院 發行
- 1986 安養文化5, 「安養市 地名由來」, 安養文化院 發行
- 水原文化5, 「水原現代資料 日誌」體育編(1921~1945), 水原文化院 發行
- 水原文化6, 「水原現代資料 日誌」遞信交通編(1894~1941), 水原文化院 發行
- 1987 畿甸文化2, 「畿甸地方을 所在로 한 博士碩士學位 論文目錄」, 畿甸鄉土文化研究會 發行
- 水原文化7, 「水原現代資料 日誌」文化藝術編(1920~1940), 水原文化院 發行
- 水原文化8, 「水原現代資料 日誌」農業編(1899~1944), 水原文化院 發行
- 1988 始興郡誌下, 「始興郡 地名由來」, 始興郡 發行
- 水原文化9, 「水原現代資料 日誌」商工業編(1899~1945), 水原文化院 發行
- 水原文化10, 「水原現代資料 日誌」社會編(1910~1945), 水原文化院 發行
- 1989 내고장 安山, 「安山市 地名由來」, 安山文化院 發行
- 「水原·華城行宮資料一覽」, 水原·華城行宮復元推進委員會 發行
- 1991 安養市誌, 「安養의 沿革」, 安養市 地名由來」·「安養의 人物」·「安養의 姓氏」·「安養의 土產品과 貢物」, 安養市 發行
- 1992 畿甸文化9, 「黃月仙傳 解題」, 畿甸鄉土文化研究會 發行
- 光明市誌, 「光明市の 沿革」·「光明市の 地名由來」, 光明市 發行
- 1993 果川鄉土史, 「果川市 沿革」·「冠岳山과 清溪山」, 果川文化院 發行
- 1996 衿川區鄉土文化誌, 「始興檀君殿址」·「衿陽雜錄과 安氏世家」, 衿川區 發行
- 1997 水原市史, 「水原年表」, 水原市 發行
- 安山市史, 「安山の 人物」, 安山市 發行
- 1998 烏山市史, 「烏山年表」, 烏山市 發行
- 1999 水原市 地名由來集, 「水原의 道路·橋梁·交叉路·高架車道·地下車道·地下步道·陸橋의 由來」, 水原文化院 發行
- 漣川郡誌, 「漣川年表」, 漣川文化院 發行

◆ 鄉土誌 發刊 主管

- 1985~1988 始興郡, 『始興郡誌』上·下, 始興郡誌編纂委員會
始興郡, 『始興金石總覽』, 始興郡誌編纂委員會
- 1988~1990 安山文化院, 『내고장 安山』, 내고장 安山編纂委員會
- 1991~1993 果川文化院, 『果川鄉土史』上·下, 果川鄉土史編纂委員會
『果川鄉土史』CD-ROM, 果川鄉土史編纂委員會

◆ 學術發表

- 1989.12 水原·華城行宮復元推進委員會, 「水原華城行宮資料에 대하여」, 韓電京畿支社
1994.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民國輿地勝覽編纂을 위한 基本體系」
1994.9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民國輿地勝覽編纂을 위한 內容體系」
1998.4 京畿文化財團, 「鄉土誌編纂事例研究」, 龍仁市青少年修練마을
1998.9 京畿文化財團, 「始興市 君子洞 九芝井의 歷史와 文化遺產」, 始興市 君子洞
2000.6 國史編纂委員會, 「近·現代史 地方史料 蒐集的 實際」

◆ 學術討論

- 1990.10 國史編纂委員會, 「第6回 國史編纂委員會 史料調查委員 會議」, 京畿道教育廳
1993.10 韓國鄉土史研究全國協議會, 「第7回 鄉土史研究全國學術大會」, 主題：金石文, 忠南 公州
1994.12 韓國鄉土史研究全國協議會, 「第4次 심포지엄」, 主題：村落文化調查研究의 現況, 全南 求禮

◆ 講演

- 1986~1989 光明市, 「光明市の 歷史알기」, 光明市廳
1987 始興郡, 「始興郡의 傳統文化」, 始興郡廳
1988~1989 安養市, 「安養市の 歷史」, 安養市民會館
1989~1994 始興市, 「始興의 歷史와 文化」, 始興市廳 會議室
1989~1993 軍浦市, 「軍浦市の 歷史理解」, 軍浦市廳
1992.10 始興市 新川洞, 「始興市の 歷史와 文化」, 작은자리
1995.12 始興市 新川洞, 「始興市の 歷史」, 福音信協
1996.1 果川道立圖書館, 「果川の 歷史와 文化」, 果川道立圖書館
1996.6 安山教育廳, 「始興·安山の 歷史와 文化」, 浦里初等學校
1996.11 果川文化院, 「果川の 歷史」, 果川文藝會館
1996.12 安山專門大, 「安山の 歷史와 文化」, 安山專門大學
1997.5 安山專門大, 「安山の 歷史와 文化」, 安山專門大學
1997.12 果川文化院, 「果川の 歷史」, 果川文藝會館
1998.5 光明市, 「梧里 李元翼先生の 生涯와 思想」, 所下中學校
安山專門大, 「安山の 歷史와 文化」, 安山專門大學
1998.8 果川文化院, 「果川の 歷史」, 果川文藝會館
1999.5 安山專門大學, 「安山の 歷史와 文化」, 安山專門大學
1999.8 果川文化院, 「果川の 歷史」, 果川文藝會館
1999.9 始興YMCA, 「始興의 文化財와 遺産」, 始興YMCA
1999.10 軍浦高等學校, 「軍浦地域의 歷史的의 由來와 傳統文化」, 軍浦市民會館
1999.11 安山專門大, 「安山の 歷史와 文化」, 安山專門大學
君西初等學校, 「始興의 文化遺產」, 君西初等學校
1999.12 始興市, 「始興의 文化財와 遺産」, 始興市廳 大會議室
2000.5 安山一大學, 「安山の 歷史와 文化」, 安山一大學

2000.7	果川文化院, 「果川の 歴史」, 果川文藝會館
2000.10	安山一大學, 「安山の 歴史와 文化」, 安山一大學 土地博物館, 「郷土事例研究」, 土地博物館 始興市學院聯合會, 「始興의 歴史와 文化遺産」, 綜合福祉會館
2000. 12	恩惠美術學院, 「始興의 歴史와 文化遺産」, 綜合福祉會館
2001. 5	安山一大學, 「安山の 歴史와 文化」, 安山一大學

◆ 遺物·遺蹟發見 및 文化財 指定

1986	始興市 鞍峴洞, 「金致仁 先生 墓」- 郷土遺蹟 第1號 始興市 烏南洞, 「張維 先生 墓 및 神道碑」- 郷土遺蹟 第2號 始興市 新川洞, 「河演 先生 墓 및 神道碑」- 郷土遺蹟 第3號 始興市 烏南洞, 「趙秉世 先生 墓」- 郷土遺蹟 第5號 始興市 下中洞, 「官谷池」- 郷土遺蹟 第8號 儀旺市 月岩洞, 「韓翼馨 先生 墓」- 郷土遺蹟 第1號 儀旺市 浦一洞, 「蔡世英 先生 墓 및 神道碑」- 郷土遺蹟 第2號 安養市 飛山洞, 「飛山洞 陶窯址」- 道記念物 第124號 始興市 果林洞, 「重林驛舍址」 始興市 君子洞, 「城隍祠址」 光明市 日直洞, 「李純信 墓」- 郷土遺蹟 第4號 始興市 長谷洞, 「仁宣王后 生家址」
1987	始興市 烏南洞, 「安山社稷壇址」 서울 始興4洞, 「衿陽雜錄 著述社」 安山市 獐下洞, 「雙鹿院址」 始興市 正往洞, 「正往山烽燧臺址」 始興市 正往洞, 「吾叱哀 烽燧臺址」
1988	安山市 花井洞, 「枯松亭址」- 道記念物 第101號 儀旺市 清溪洞, 「清溪寺所藏木版」- 道有形文化財 第135號 始興市 烏南洞, 「烏南里支石墓」- 道記念物 第103號 始興市 君子洞, 「永膺大君 墓 및 神道碑」- 郷土遺蹟 第9號 始興市 新川洞, 「河友明 孝子旌閭」- 郷土遺蹟 第11號 始興市 君子洞, 「朴東亮 先生 墓 및 神道碑」- 郷土遺蹟 第12號 始興市 君子洞, 「金俊龍 將軍 墓 및 神道碑」- 郷土遺蹟 第13號
1989	安山市 秀岩洞, 「安山邑城 및 官衙址」- 道記念物 第123號 安山市 秀岩洞, 「安山厲壇址」
1990	始興市 무지내동, 「무지내동 胎封」- 郷土遺蹟 第6號 始興市 大也洞, 「蘇萊山磨崖菩薩立像」- 郷土遺蹟 第15號 始興市 大也洞, 「仁川府零社壇址」
1992	始興市 芳山洞, 「白磁·靑磁 陶窯址」(芳山洞 292) 儀旺市 清溪洞, 「白磁陶窯址」 始興市 竹栗洞, 「생금집」- 郷土遺蹟 第7號
1997	始興市 去毛洞, 「清州韓氏 文翼公派 墓域」- 道記念物 第163號
1998	始興市 芳山洞, 「芳山洞 靑瓷·白瓷 가마터」- 郷土遺蹟 第15號

- 1999 始興市 芳山洞, 「始興 芳山洞 青瓷·白瓷 窯址」- 史蹟 第413號
 始興市 陵谷洞, 「柳自新 先生 墓 吳 神道碑」- 鄉土遺蹟 第4號
- 2001 始興市 大也洞, 「始興蘇萊山磨崖像」- 寶物 第1324號
 始興市 君子洞, 「君子城隍祠址」- 鄉土遺蹟 第14號
 始興市 烏南洞, 「始興 烏南 社稷壇址」- 鄉土遺蹟 第15號
 始興市 山峴洞, 「尹民獻 先生 墓」- 鄉土遺蹟 第16號

◆ 日帝地名 바로잡기

- 1995 始興市 茂芝洞 → 무지내동
 安山市 章上洞 → 獐上洞
 安山市 章下洞 → 獐下洞
 光明市 日直洞 → 一直洞
 始興市 廣石洞 가사이산 → 범배산

◆ 學校 校名 作名

- 1995 始興市 正往洞, 「冷井 初等學校」
 始興市 正往洞, 「正往 初等學校」
 始興市 正往洞, 「正往 中學校」
 始興市 正往洞, 「松耘 初等學校」
 始興市 正往洞, 「松耘 中學校」
 始興市 正往洞, 「함현 初等學校」
- 1996 始興市 正往洞, 「西村 初等學校」
- 1997 始興市 正往洞, 「함현 中學校」
 始興市 正往洞, 「함현 高等學校」
 始興市 長谷洞, 「진말 初等學校」
 始興市 新川洞, 「新川 初等學校」
- 1998 始興市 長谷洞, 「長谷 中學校」
 始興市 下中洞, 「下中 初等學校」
 始興市 下上洞, 「蓮城 中學校」
- 2000 始興市 新川洞, 「新川 中學校」
 始興市 銀杏洞, 「금모래 初等學校」
- 2001 始興市 梅花洞, 「始興 梅花初等學校」
 始興市 去毛洞, 「道一 初等學校」

◆ 初等學校 鄉土教材 監修

- 1993 安養教育廳, 『자랑스러운 내고장 果川』
 1996 安山教育廳, 『安山·始興市 三學年 -社會-』

◆ 典籍發掘

- 1981 서울대奎章閣, 『園幸定例』
서울대奎章閣, 『始興郡民擾再查案』
서울대奎章閣, 『始興·稷山按察使奏本』
- 1990國立中央圖書館, 『朝鮮社會教化要覽』
- 1991始興市下中洞, 『蓮池事蹟』
- 1992始興市下中洞, 『蓮城吟社 第壹回集』
始興市下中洞, 『蓮社名帖』
- 1994始興市果林洞, 『黃月仙傳』
始興市果林洞, 『名賢錄』
始興市下中洞, 『傲軒集』(白尙瑩)
安山市花井洞, 『蓮城吟社 詩帖』
始興市下中洞, 『國朝科譜』
- 1999始興市山峴洞, 『家禮諺解』

◆ 書畫·肖像·寫真發掘

- 1986始興市山峴洞, 「穎川洗耳圖」(尹儼)
- 1987서울대奎章閣, 「華城行官圖」
儀旺市2洞, 「韓聖佑 肖像」
- 1988潘南朴氏門中, 「朴師益 肖像」
清風金氏門中, 「金幹 肖像」
- 1989서울대奎章閣, 「四神圖」
安山市釜谷洞, 「安山客舍寫真」
- 1991始興市山峴洞, 「覽勝圖」

◆ 傳統民俗놀이 考證·發掘·指導

- 1986.9「修理山 山神祭」, 第5回 京畿道 民俗藝術競演大會 始興郡 民俗으로 出演
- 1989.9「修理山 山神祭」, 第6回 京畿道 民俗藝術競演大會 軍浦市 民俗으로 出演
- 1992.9「새우개장승놀이」, 第7回 京畿道 民俗藝術競演大會 始興市 民俗으로 出演
- 1993.9「君子城隍祭」, 第8回 京畿道 民俗藝術競演大會 始興市 民俗으로 出演
「장치기」, 第8回 京畿道 民俗藝術競演大會 水原市 民俗으로 出演
- 1995.9「월미풍물놀이」, 第9回 京畿道 民俗藝術競演大會 始興市 民俗으로 出演
- 1995.9「安養날미농악」, 第9回 京畿道 民俗藝術競演大會 安養市 民俗으로 出演
- 1996.9「軍浦堂洞풍물놀이」, 第1回 京畿道 靑少年 民俗藝術競演大會 軍浦市 民俗으로 出演
- 1997.9「始興殿下奉迎놀이」, 第10回 京畿道 民俗藝術競演大會 始興市 民俗으로 出演
- 1998.9「삼성리 두레놀이」, 第2回 京畿道 民俗藝術競演大會 軍浦市 民俗으로 出演

◆ 所藏品 展示

- 1975.7 安西國交,「韓國新聞展」,安西國民學校 講堂
1976.10 安養女高,「韓國雜誌創刊號展」,安養女子高等學校 講堂
1999.9 東亞日報,「20世紀 韓國스포츠100年展(新聞號外·雜誌·담배)」,一民美術會館 李吉用 紀念事業會
2001.11 果川鄉土史研究會,「삶의 記錄文化」,果川市民會館

◆ 賞 勳

◦ 表彰狀

- 1971.5 秀岩面 相互親知會,「模範青年」有功
1977.1 秀岩防衛協議會,「地域發展」有功
1985.10 京畿道知事,「文化藝術發展」有功
1989.10 京畿道知事,「文化藝術發展」有功

◦ 感謝牌·感謝狀·感謝文

- 1974.10 安西國民學校長,「反共鄉土館運營」有功
1975.2 東亞日報社長,「言論自由守護支援金」有功
1975.9 中央日報社長,「創刊購讀」有功
1976.10 安養女子高等學校長,「韓國雜誌創刊號 展示」有功
1977.4 東亞日報社長,「長期購讀」有功
1986.1 安山市長,「安山市 昇格」有功
安山金氏大宗長,「安山市 昇格」有功
1989.6 儀旺市長,『始興郡誌』發刊 有功
1991.2 安山文化院長,『내고장 安山』發刊 有功
1995.12 安山教育長,『安山·始興市 三學年 -社會-』監修 有功
1996.12 卍安養會長,『安養市地名由來集』發刊 有功
1997.1 서울文化史學會長,『衿川區鄉土文化誌』發刊 有功
1998.3 水原市長,『水原市史』發刊 有功
水原市長,「華城行宮」復元 有功

◦ 功勞牌·功勞狀

- 1990.9 安山市長,『내고장 安山』發刊 有功
1992.12 卍安養會長,『元泰祐志士事蹟碑建立』有功
安養市長,『安養市誌』發刊 有功
1994.1 果川文化院長,『果川鄉土史』發刊 有功
1995.6 始興市長,『始興鄉土文化叢書』發刊 有功
2000.11 國史編纂委員會委員長,「史料調查委員活動」有功

◦ 文化賞

- 1976.10 秀岩單位農業協同組合長,「傳統民俗文化保存」有功

◦ 紀念牌

1982.1 中央日報社, 「中央日報 5000號 愛讀者」, 有功

◆ 金石文 拓本 吳 展示

1986~1988 始興郡 全域, 「神道碑·事蹟碑·墓碣·墓碑·墓表·墓誌·文學碑·岩刻」, 等 200點 拓本
1987.10 始興郡廳, 「始興 金石文拓本展」
1988.9 始興郡 新川里, 「蘇萊山磨崖菩薩立像拓本展」
1995 始興市 一圓, 「神道碑·墓碣·文學碑·墓碑」, 等 20點 拓本

◆ 文化遺蹟碑 建立

1989.1 儀旺市 古川洞, 「肆觀行宮터 碑」(碑文 撰)
1990.12 始興市 烏南洞, 「趙秉世 先生 事蹟碑·臥碑」, 建立
1992.11 安養市立圖書館, 「元泰祐 志士 事蹟碑」(碑文 撰)
1995.5 始興市 芳山洞, 「홍도야 우지마라 노래비」
1999.5 始興市 長谷洞, 「朝鮮時代 仁宣王后가 살던 마을 由來碑」
1999.7 始興市 君子洞, 「君子洞 九芝井마을 由來碑」(碑文 撰)
始興市 下中洞, 「官谷마을 由來碑」(碑文 撰)
1999.11 始興市 正往洞, 「玉鉤島 由來」(文案 作成)
2001.10 始興市 正往洞, 「생금집」(文案 作成)
2001.11 始興市 大也洞, 「蘇萊山」(文案 作成)
2002.1 始興市 正往洞, 「松耘 元成模 先生 事蹟碑」(碑文 撰)

◆ 鄉土文化祭 作名

1987 始興郡, 「衿川文化祭」
1988 서울 冠岳區, 「仁憲祭」
1992 始興市, 「蓮城文化祭」

◆ 行政地名·道路名 作名 吳 諮問

1986 安山市, 「安山市」
1989 安養市, 「安養市 出張所」
1990 始興市, 「蓮城洞」
始興市, 「始興市의 街路」
1994 始興市 正往洞, 「始興工團橋」
1996 始興市 芳山洞·月串洞, 「芳山大橋」
始興市 月串洞, 「달월橋」
1997 始興市 一圓, 「始興의 三巨里 및 四巨里」
1999 始興市 烏南洞, 「烏南J.C」

始興市 鞍峴洞, 「鞍峴I.C」
始興市 大也洞, 「大也橋」

◆ 아파트 마을名 作名

1998. 9 始興市 長谷洞, 「매꽃마을」·「진말」
 始興市 下中洞, 「관곡마을」
 始興市 下上洞, 「연꽃마을」
 始興市 長峴洞, 「새재마을」
1998.12 始興市 正往洞, 「함현마을」·「옥구마을」·「송운마을」·「서촌마을」·「평안마을」
2001.11 始興市 下中洞, 「셋말」

◆ 電鐵驛舍名

2000.2 始興市 正往洞, 「烏耳島驛」

◆ 電鐵驛舍內 壁畫 設置 및 考證

2000.3 始興市 正往洞, 「正往驛舍」
 始興市 正往洞, 「烏耳島驛舍」

◆ 電鐵驛名 由來文 設置 및 文案 作成

2000.7 始興市 正往洞, 「正往驛 由來」
 始興市 正往洞, 「烏耳島驛 由來」

【 부록 2】 이한기 자료 수집 관련 신문 기고문

<편집자 주> : 이 기고문은 1977년 이한기 선생이 일간신문에 자신의 자료수집과 관련하여 직접 작성한 전문이다. 이 글 이외에도 본 조사단이 목록작업을 진행하면서 신문, 잡지 등을 통해 기고문, 인터뷰 등이 수집 차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본 기고문이 자신의 수집 목적, 분야, 시각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하여 여기에 수록했다. 이 글을 통해 1970년대 후반 당시 선생의 주요 관심사는 물론 일관된 수집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누락 자료 목록> : 다음은 신문기사에 밝힌 소장자료 목록과 본 이한기 수집자료 학술조사에서 확인된 자료수집에서 누락된 것을 목록화 한 것이다.

분류	자료명	근거(안양신문)
신문	漢城旬報 독립신문 大韓日報 時代日報 中外日報 京城日報	1977. 9. 23 기사
잡지	少年 개벽 창조 백조 金星 조선문단 文章 西友	
담배	피죤 朝日 和協 미도리 가이다 모란 승리 백구 셋별 장수연	
호외	조선일보 호외(1923) 일본항복 6·25사변 4·19의거 5·16혁명	1977. 10. 1 기사
성냥갑	전체	
뺏지	영친왕 가례기념 휘장	
		1977. 10. 15 기사

<누락 자료 설명> : 위 목록에서 보이듯이 이 기사를 작성한 당시 선생 본인이 수집, 분류한 소장 자료와 2004년 현재 최종 소장자료와 차이점이 있다. 그 이유는 기사를 작성한 시점 이후 선생의 수집 영역이 보다 구체화되고 깊어짐에 따라 본인의 소장자료 일부와 수집할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인사와의 지속적인 자료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는 선생의 전국, 경기도 단위에서 활발한 향토사 연구활동을 하면서 지인들에게 수도 없이 언급한 사항이다.

또한 ‘名士들의 筆跡’은 조사단이 목록작업을 진행하면서 팜플렛, 서간, 일반 종이 등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대중분류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애매한 까닭에 다양한 분류항목으로 처리되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위 목록 중 일부는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자연 소멸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한기, 「蒐集列傳-蒐集에 미친 20年の歷程①」,

『안양신문』 1977.9.23(토) 4면

수집은 왜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어떤 이는 미친놈이나 하는 것이라고 面駁을 주는 이도 있다.

또 어떤 이는 오죽이나 할 일이 없으면 찢어진 신문지나 주으며 아까운 인생을 보내느냐고 빈정대는 사람도 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남 잘되는 것 시기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나는 20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蒐集'이라 고리답답한 생활을 하면서 보내왔다. 그동안에 어려운 고비를 수없이 겪어왔고 그때마다 용케도 이어왔다.

나는 수집생활을 하면서 곁들여 세계 여러 나라 名士들의 취미실태를 조사했다. 지금까지 1천5백 명에 달하는데 상당수의 명사들이 수집취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작게는 우표에서부터 크게는 비행기 골동품수집에 이르기까지 千差萬別하다. 그러나 그 많은 명사들 중에도 한 사람이 5種 이상 모으는 사람은 극히 드물며 나처럼 18種의 수집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더구나 없었다.

내가 수집하고 있는 수집품목을 열거해보면 新聞을 비롯하여 雜誌·담배·名士의 筆跡·미술 안내장·號外·성냥갑·포스터·선거유인물·우표·방송프로그램·金利안내장·社報板權·舊韓末의 教科書·圖書目錄·뺨지 등인데 이들 수집품을 품목별로 간략히 소개하면

新聞

18종의 수집품 중 제일 먼저 수집에 손을 댄 것으로 중학교 1학년 때(1958) 漢字공부를 하기 위하여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모아온 신문 중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漢城旬報」(1883)를 비롯하여 「독립신문」, 「皇城新聞」, 「大韓每日新報」, 「大韓日報」, 「時代日報」, 「中外日報」, 「京城日報」 등 초창기의 신문으로부터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문에 이르기까지 어지간한 신문은 거의 소장하고 있다.

찢어진 신문지라도 나는 예사로 보지 않았다.

신문지라면 책표지 찢 것, 물건 싸운 것, 음식상 덮은 것, 도시락 싸운 것, 과일 찢 봉지, 도배지, 도서관의 보관지, 화장실의 휴지, 이발관의 면도지, 오이나 수박 등 씨앗덮개종이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모은다.

친구들이 녀마주이라고 호칭하는 것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1963)의 일,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밥상 위에 덮은 신문을 모두 걷어와 밥상 위에 먼지가 잔뜩 들어가 30여명의 일꾼들이 저녁식사를 못하는 바람에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기까지 했다. 부인은 먼지가 들어가지 못하게 신문지로 단단히 덮었다고 하고 남편은 그런 흔적이 조금도 없다고 하며 싸우기를 2시간여, 결국엔 일꾼들이 집에 가서 식사를 하기까지 했다.

國軍의 날이면 한강백사장에서는 '에어-쇼(Air Show)'가 벌어진다. 남들은 비행기의 공중 곡예로 눈을 잃고 보고있지만 나는 정신 없이 흩어진 신문지를 줍는다.

수집된 신문지는 미리 준비한 끈으로 단단히 묶어 노량진 시외버스정류장으로 가지고 간다. 오고가는 '버스'는 많지만 실어주질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밀려드는 승객 때문에 다 채우질 못하는 판국에 물건을 든 사람을 태워줄 까닭이 없다. 무게는 얼마 되지 않지만 부피

가 대단하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승객이 뜬한 10시 이후에나 간신히 사정해서 신고 오면 安養에 사정서 다시 7km 떨어진 집에까지 들러 메고 간다. 힘이 든다거나 고생스럽다는 생각은 까맣게 잊고 무슨 값진 보물을 들고 가는 것처럼 마냥 즐겁기만 하다.

시골에서는 참외나 오이, 수박 등의 씨앗을 심을 때 새가 까먹지 못하게 신문지로 고깔을 해서 씌운다. 한 번은 1000여 평의 넓은 밭에 온통 신문지로 덮어놓은 것을 야음을 틔타 모두 걷어왔다.

밭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도둑을 잡아달라고 애걸하기까지 했다. 신문지값은 어데 갔던지 일년 농사 망쳤다고 분을 참지 못해 눈물을 글썽거리는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대학교 2학년 때(1965)의 일. 등교를 하다가 마침 길바닥에 떨어진 구질구질한 신문지를 줍다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구두발로 손등을 밟는 바람에 피가 낭자했다. 그때의 상처를 말해주듯이 지금까지도 흉터가 남아있는데 3년 전에는 그 친구가 민사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부탁하기도 했다.

모 도서관에 찾아가서는 책임자에게 보관용신문을 모두 달라고 했다가 호통만 맞았다. 공공기관의 귀중한 자료를 개인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는 것.

나는 며칠을 두고 친구와 의논 끝에 결국에는 도서관의 신문을 모두 가지고 와서는 무슨 뱃장으로 다시 책임자에게 가서 신문을 줄 수 없느냐고 재차 얘기했더니 나중에 '미친 놈' 이라고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친구결혼식 피로연에 갔다가 잔치상 위에 덮은 신문을 걷다가 마을청년들로부터 도둑으로 오인돼 떡살을 잡혔다. 도둑을 잡으면 으레 하는 것처럼 불끈 권 주먹이 전광석화처럼 나의 두 뺨을 세차게 몇 번 지나갔다. 아프다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인처럼 당하고 있는 자신이 웬지 모르게 서글프게만 느꼈다. 수집하는 사람이 겪는 또 하나의 작은 시련인 것이다.

모으고 있는 신문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① 日刊紙, 週刊紙 등 일반독자들 상대로 발행되는 商業紙, ② 初·中·高·大學에서 발행되는 學校新聞, ③ 政黨·종교·사회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발행되는 機關紙, 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에 의해 발행되는 同胞新聞(例-新世界新聞, 가주신문), ⑤ 외국에서 발행되는 외국신문, 그밖에 通信·地下新聞에 이르기까지 신문의 형태를 갖춘 것이라면 모두 모은다.

신문을 모을 때는 사건의 輕·重에 따라 또는 창간호나 속간호·중간호 등은 신문마다 20~100부까지 모으며 보통 때는 신문마다 4부씩 모으는데 이는 保管紙 外에 '스크랩(Scrap)' 용으로 사용한다.

'스크랩'은 1950년대 말부터 문화재와 역사에 관한 기사는 빠짐없이 오려놓았는데 이것을 '스크랩' 하면 1천권 이상은 되고 남은 기사가 내용별로 정리되어 있다.

雜誌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는 잡지를 1천1백80種에 약 3천5백권 모았다. 한국에서 최고로 모았다는 서지학자 白某씨의 1천3백 종에 1만여 권에 비하면(인사동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현재 연세대에서 소장하고 있다는 것) 보잘 것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수집된 잡지 중에는 「少年(1908)」을 비롯하여 「大韓協會會報」, 「개벽」, 「青春」, 「창조」, 「백조」, 「金星」, 「조선문단」, 「文章」, 「西友」 등 초창기의 잡지들은 한두 권씩 거의 소장하고 있다.

근래에는 서울의 유명한 고서점이나 헌책방을 샅샅이 뒤져도 해방 전의 잡지를 구하기 어렵다.

어찌다가 옛장수나 휴지판매소 등에서 희귀한 잡지들이 나올 때가 있지만 그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다.

잡지 수집은 창간호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976년 10월에는 안양여고에서 5백70종의 잡지를 전시한 바 있다.

담배

한국에서 담배를 처음 피운 사람은 이조 인조 때 병조판서를 지낸 張維(1647~1698)로 알려졌다. 그는 또 웃어른에게 맞담배를 안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다. 그분의 묘소가 수암면 조남1리에 있고 후손도 그곳에서 살고 있다.

담배를 수집하게 된 동기는 일제시대부터 담배를 모아왔다는 서울의 某씨로부터 2년 동안 끈질긴 교섭 끝에 1966년 가을에 입수하면서부터이다. 모아진 담배 중에는 「피죤」, 「朝日」, 「和協」, 「미도리」, 「가이다」, 「모란」, 「승리」, 「백구」, 「새별」, 「장수연」, 「파랑새」, 「청자」 등 우리나라에서 나온 담배수집가로 유명한 서울의 이모씨도 「백구」나 「모란」 등은 아직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S일보 한 분으로 알려졌다.

담배를 모을 때는 알맹이가 들어 있는 원형 그대로 모으는데 조금이라도 담배갑이 찌그러지지 않게 약품처럼 뾰뾰한 상자에 넣어 보관시킨다.

名士의 筆跡

현존 및 작고한 명사들의 日記·싸인·원고·휘호·言行錄 등을 모으는 것으로 친지나 친구를 통하기도 하고 출판사나 신문사 등 인쇄물을 다루는 곳 또는 명사의 宅을 직접 찾아가거나 편지를 해서 구한다.

소장한 명사들의 필적으로는 張勉(전 국무총리), 李範奭(), 金鍾泌(), 俞鎮午(전 고려대 총장), 장준하(전 사상계 사장), 손재형(서예가), 민재호(방송인), 李瑞求(극작가), 金東里(소설가), 朴木月(시인), 金昌源(경제인), 劉永國(화가), 金禎燮(등산가), 林應植(사진작가) 등 각계의 명사 3백 70명분의 필적이 있고, 특히 손기정씨를 비롯한 이창훈, 장창신, 양정모, 조혜정 등 역대올림픽메달리스트의 필적은 거의 소장하고 있다.

미술안내장

1960년 초부터 國展을 위시해서 개인전, 그룹전에 이르기까지 미술工藝, 書藝, 建築, 조각, 사진전 등의 안내장을 5천 1백여 점 소장하고 있다.

미술에는 무지에 가깝던 내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작품을 보고 비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20여 곳 이상의 호랑이 있고, 지방에서도 미술전이 활발해 이들 안내장을 모두 구입하기란 어려운 일이어서 요사이엔 웬만큼 이름이 알려진 화가의 작품만을 찾아 안내장을 구하는데 안내장의 값이 싼 것은 불과 몇 십 원에서부터 비싼 것은 몇 천 원까지 훗가하고 있다.

안내장을 求할 때 展示場에서 화가를 만나면 자필서명을 받기도 하고 함께 작품얘기를 나누기도 한다.

號外

號外에는 ① 事件의 보도, ② 入學合格者 發表, ③ 學習紙, ④ PR紙 등으로 나누는데 현재 입학합격자 발표와 학습지의 호외는 드물고 PR紙와 事件號外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도 사건의 긴박성을 알려주는 호외는 신문과 달라서 한 번 보고 나면 休紙化되기 때문에 시간을 놓치면 구하기가 어렵다. 수년 전만 해도 호외가 발행되면 지방독자들까지 일일이 배달이 되었는데 요사이 서울시내를 중심으로 배달되는 경우가 많아 지방의 수집가가 호외를 완벽하게 모으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소장하고 있는 호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923년 보도한 조선일보의 호외이다. ① 日本 항복, ② 6·25사변, ③ 4·19의거, ④ 5·16혁명, ⑤ 人間 달 착륙, ⑥ 양정모 금메달 획득 등인데 이들 호외는 비록 한 번 보고 나면 휴지는 될지언정 그것은 후일 역사의 한 章을 장식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한기, 「蒐集列傳-蒐集에 미친 20年の歷程②」

『안양신문』 1977.10.1(토) 4면

民藝品

人間은 흘러간 과거를 아름답게 생각하게 마련이고, 그래서 과거에 對한 애착심을 갖게 되는 것이 人間の 본능이기도 하다.

요즈음 흘러간 가요와 史劇이 인기를 얻는 것과 어린이들이 옛날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이나 연로한 분들이 옛날타령하는 것이 결국엔 그런 발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보다 적극적이 되면 옛것을 수집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古錢이나 별전 민예품 등 옛것을 모으게 된 동기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민예품은 여너 수집품목과 달리 손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다 적은 비용으로도 수집이 가능하다.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사용하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부터 하나 둘 모으기 시작했다.

웬만한 가정에 가면(특히 시골) 민예품들이 헌신짝처럼 집구석구석에서 나뒹굴러져 있어 이것을 필요하니 달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었다.

우리 선조들이 생활용구로 사용했던 떡통·나막신·멧돌·등잔·떡살 등 토속미가 물씬 풍기는 유품들을 모으는 것은 어쩌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하긴 바다 건너 외국의 것이라면 미치도록 좋아하면서 진작 내 것이라면 다 보잘것없고 남에게 내세우기조차 부끄러워하는 소위 "인테리"라고 자처하는 주부님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외제 고급가구를 밀수입하려다 적발돼 세인을 놀라게 한 사건 등은 좋은 본보기라 하겠다.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변모해간다. 우리네 의·식·주생활도 예외는 아니다. 조바우·쌈지·장죽·노리개 등이 차차 우리 주변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선풍기나 에어컨으로 말미암아 부채도 사라져가고 있다. 나막신을 신고 갓을 쓰고 다니는 노인도, 떡통이나 자귀질 해가며 집을 짓는 목수도, 가마 타고 족두리 쓰며 결혼하는 풍습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근대화에 밀려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다. 물론 시대의 조류에 따라 새로운 생활로 변모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그 시대 그 생활용구만은 오래도록 간직하여 우리 선조들의 아름다움과 멋을 후세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古錢

우리 전래의 민속 중에 산모가 진통을 시작하면 옆에서 시중 드는 분이 두 손에 엽전을 넣고 (흔들어) 댈다. 짤랑대는 소리를 듣고 어서 세상에 나오라는 뜻인데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온 아이는 자라서도 한평생 돈과 더불어 웃고 울다가 늙어 죽으면 또다시 돈의 신세를 져야 했다. 즉 엽을 할 때 입과 귀에 엽전을 물려주는데 이것은 저승길 가는데 여비라도 보태 쓰라는 것이다.

한때는 뒷골목에서 아이들의 제기차기나 맷돌에 사용되기도 했던 고전이지만 이젠 사라진 지가 오래이다. 요즘에는 새마을사업으로 초가가 별로 없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가를 헐고 새집을 지으려고 집터를 닦다가 간혹 古錢이 무더기로 나오기까지 했다.

시골에서는 아이들이 고전을 들고 옛장수에게 가지고 가서 옛과 맞바꿔 먹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고전수집을 하는데는 옛장수를 통해야 용이했다.

그밖에 고물상이나 유기점·주물공장에서 일괄로 구입하는 예가 허다한데 고전이라고 해서 웃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리(銅) 값에다 약간의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 상례였다.

내가 고철을 처음 수집할 무렵에만 해도 일반의 고철에 대한 관심이 적은 탓인지 어쩌다가 고전이 생기면 이웃마을에서까지 가지고 와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 되고 말았다.

1971년(?) 6월부터는 신문지상에 「고전고가매입」이란 광고가 연일 보도가 되고 골동품 수집상들이 시골 구석구석에까지 돌아다니며 매입하기 때문인지 어쩌다가 고철 한 개라도 생기면 무슨 보물이라도 얻은 듯 보여주려고 조차 않는다.

이젠 우리나라의 고전(현재 사용중인 화폐까지)을 웬만큼 모아온 탓으로 앞으로는 시간이 나는 대로 체계 있게 정리해서 전시회를 갖는 것이 나의 작은 소망이다.

別錢

별전 하면 우리에게 낯선 돈임에는 틀림이 없다. 별전은 여러 화폐와 달라서 유통력은 없지만 모양은 화폐와 비슷하다. 별전이 만들어진 시기는 고려 중엽부터 조선 중엽까지를 잡고 있지만 주로 조선 19대 숙종 때 상평통보를 始鑄하면서 銅貨검사를 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별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국가의 경축일이나 왕실의 경사가 있을 때 왕실에서만 주조하여 이를 기념 또는 송축하기도 하였다. 그후 점차로 별전의 出回量이 많아짐에 따라 일반인들도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사사로 만들기도 하였다.

별전은 형태상으로 문자전과 회화전으로 대별된다. 문자전에는 仁智禮儀, 富貴多男, 壽福康寧 등의 한자가 새겨져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별전에는 순 한글로 새겨져 있는 것도 있다.

회화전에는 용·학·거북·소나무·달·해·소 등의 그림이 있기도 하고 어떤 별전 뒷면에는 남녀 교합하는 모습을 새긴 이른바 춘화전도 있다. 어느 古錢商의 얘기로는 이 춘화전이 외국인에게 굉장한 인기여서 고가로 사간다는 얘기가 있다.

내가 별전에 관심을 갖기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급우인 丁모로부터 이상한 엽전을 받았는데 무슨 돈인 줄 몰라 골동품가게에서 물어본 결과 그것이 별전이라는 것을 알고부터 고전수집과 결들여 본격적으로 모으고 있다. 지금 모아진 별전은 1백 50종을 넘지 못하고 있지만 근래에는 절품상태여서 고전보다도 구하기가 어렵고 값도 훨씬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성냥갑

성냥은 1866년 독일의 「테니히·브란트」에 의해 처음으로 발명되어 오늘에는 세계 각처에서 성냥 없이는 생활에 불편을 줄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에 상륙하기는 대개 동경올림픽(1964) 이후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 내가 성냥갑을 수집하게 된 동기는 7년 전 친구인李明로부터 그동안 모아둔 것을 인수받은 후부터이다.

성냥갑 수집은 성냥갑 그 자체보다도 수집에 얽힌 추억과 에피소드가 내 마음을 마냥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다른 수집품목과 달리 애착이 간다. 나는 어찌다가 다방이나 음식점에 가게 되면 으레 성냥갑을 부탁하는 것이 버릇처럼 되었다. 나의 성냥갑 수집취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의 이러한 부탁에 담배도 피우지 못하는 주제에 성냥갑은 무엇에 쓰느냐고 편잔을 주기까지 한다.

또 여러 사람이 모이면 담배를 피우게 마련이어서 그때마다 성냥갑에 신경을 쓰곤 하는데 디자인이 유별나거나 처음 보는 것이면 새것과 교환해서 구한다.

요즈음에는 광고매체를 사용하는 외에 성냥갑 앞뒤 여백을 백지로 하여 메모지로 쓰거나 전화번호, 비행기나 열차 시간표 등을 새기기도 하고 자기의 이름을 새겨 명함 대신 이용하기도 한다.

시인 이모씨의 시화전 때에는 성냥갑을 안내장으로 대신 사용하여 '一朝一夕'의 효과를 노린 예도 있다. 어떤 수집가는 성냥갑으로 실내장식과 병풍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그 운치가 한결 돋보이기까지 하였다.

그동안 모아온 성냥갑은 4천 3백 갑에 이른다. 그 중에는 「고호」의 누드화로 말쑥을 빚어 화제가 되었던 「유연성냥」도 끼어 있다.

포스터

미술·연극·음악 등 예술전 「포스터」와 「스포츠」 「포스터」 등 293점을 소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포스터」로는 「멕시코」 「문헨」 「테헤란」에서 개최된 바 있는 「올림픽」 선전 「포스터」이다.

선거유인물

1956년에 실시한 정·부통령선거 당시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민주당의 선전표어를 필두로 대통령·국회의원·참의원·지방의회의원·국민투표에 이르기까지 각종 선거에 사용했던 표어, 「포스터」 선거공보·연설문 등의 유인물을 1천 3백 50여 점 소장하고 있다.

이한기, 「蒐集列傳-蒐集에 미친 20年の歷程(끝)」

『안양신문』 1977.10.15(토)

우표

우표는 수집인구도 많고 희소가치도 다른 수집품목보다도 적어 이에 대한 관심도 적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수집가들처럼 우체국이나 우표상을 찾아가는 극성을 떨지는 않는다.

외국우표는 수집대상에서 거리가 멀고 다만 국내에서 발행된 우표·엽서 슈트·X-마스셀 수입인지에 이르기까지 수집범위가 넓은데 7천 8백여 점 소장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

대학에서의 전공과목이 방송학이었던 관계로 학업의 한 방편으로 모으기 시작했는데 판권과 같이 수집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

방송프로그램은 방송국마다(특히 TV) 대외비라 하여 사내직원이나 언론기관 스폰서 외에는 배포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다.

TV를 비롯하여 라디오FM의 프로그램을 3백 30점 소장하고 있다.

金利안내장

은행·채신부·보험회사·無盡('상호신용계'의 옛 명칭)회사·기타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각종 금리안내장 2,600점을 모았다. 이것은 금리의 인상이나 인하 등 금리를 조정할 때 발행되기 때문에 수집에 큰 애로가 없다.

私報

사보는 사내의 동정이나 자사의 제품 PR 등을 실는 것이 보통인데 이에는 잡지형과 신문형의 2가지가 있다. 현재까지 소장하고 있는 사보는 135종.

版權

수집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가장 손쉬우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판권이다. 판권은 책 맨 뒷장에 붙어 있는 저자나 편자·번역자의 도장인데 동일인이라도 각기 다른 종류의 책에 붙은 판권은 틀리는 것이 많다.

주로 헌책방이나 친지·친구의 책 서가에서 주인 몰래 떼는데 3,759점을 소장하고 있다.

舊韓末의 教科書

고서점을 드나들다 이따금 한두 권씩 모은 것이 지금엔 140권 정도 된다. 구한말의 교과서는 서울시내의 고서점에서 종종 구할 수 있는데 싼 것은 1천 원 내외이지만 비싼 것은 몇 만 원을 호가하는 것도 있다.

도서목록

각 출판사마다 자사의 서적을 선전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도서목록은 가을이면 해마다 出協 주최로 출판물전시를 하는데 전시기간을 이용해서 모으곤 한다. 소장하고 있는 것은 모두 2300권.

뺏지

18종의 수집품 중 가장 늦게 시작한 것으로도 스포츠에 관련된 뺏지를 모으고 있다.

대한 체육회에 근무하는 친구가 자기 일처럼 모아주기 때문에 큰 애로는 없다. 뺏지 외에 기념메달이나 휘장을 곁들여 모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영친왕의 가례를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기념휘장이다.

수집가들이 겪는 공통점은 자금난을 들 수가 있다. 아무리 훌륭하고 희귀한 물건이 있어도 비용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더욱이 희귀한 물건일수록 경쟁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놓치면 자기의 소장품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진정한 수집가라면 수중에 항상 충분한 돈이 있어야 하고 설사 없다고 해도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융통할 수 있는 수완이 있어야 한다. 한두 품목이 아닌 18종이나 되니 이것들을 모두 체계 있게 모으자면 자금의 궁핍이란 말이 아니다. 어떤 사람처럼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스폰서가 있는 것도 아니기. 오직 농사만을 천직으로 알고 있는 농부로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모았다는 것이 대견스러운지도 모른다.

수집에 입도할 무렵인 중학교시절에는 휴일이면 개구리를 잡아다 오리 기르는 집에 갔다가 팔기도 하고 손수 토끼를 기르기도 하였다. 새 교과서를 산다고 돈을 주며는 헌 교과서를 사거나 빌어서 공부를 하였다. 수학여행이나 소풍은 산이나 들에서 놀다오기가 일쑤여서 남들처럼 수학여행이나 소풍에 관한 추억이 전혀 없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다방이나 술집, 당구장 등은 단 한 번도 출입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웃어 넘길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1972년 가을에는 수집비에 일부라도 보태 쓰려고 500평 남짓한 밭에 배추를 정성스럽게 가꾸었다. 안 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방아를 찧는다고 그 해의 김장배추는 사상 유래 없는 풍작이어서 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종자값은 커녕 인건비도 되지 않았다. 그래도 애써 가꿔놓은 것을 그냥 버릴 수 없어 트럭 2대에 나눠 싣고 영등포 야채시장으로 갔는데 얼마나 많은 배추가 쌓였던지 차가 들어설 틈도 없었다. 한참만에야 배추를 부러놓기는 했으나 운임이 문제였다. 수중에는 단 한푼도 없었다. 다행히 상회주인의 호의로 차운임이 지불되었다. 그러나 배추를 갖다 놓은 지 2일이 지나도 팔리지 않았다.

3일째가 되는 날부터는 쌓아 놓 배추가 썩어가기 시작했다. 가져오지나 않았으면 차운임은 안 들었을 터인데 하고 후회했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상회주인은 안되었던지 1천원을 주면서 차비나 하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 돈을 들고 화랑을 찾았다. 안내장의 가격은 5백원. 사고는 싶은데 엄두가 나질 않았다.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문 앞에서 노산 이은상 선생님과 마주쳤다.

나는 전시장에서 名士(특히 화가)를 만나면 안내장에다 자필서명을 받는 것이 상례였다. 노산 선생님을 보자 곧 안내장을 사들고 가서는 서명을 부탁드렸다. 그 서명한 안내장을 받아 쥐고 나는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남들이 알면 미친놈이라고 욕을 했을지도 모른다. 있는 사람이야 5백원이 큰 일일 수 없지만 당시 나에게 있어 5백원이란 배추 한 '트럭'값이다. 여름 내내 비지땀을 흘려가며 가꿔 얻은 수확이 겨우 안내장 하나값에 지나지 않으니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단 한푼을 아끼기 위하여 기호품인 술과 담배를 전혀 안하고 고기라고는 새우젓까지도 일체 입에 대지를 않는다.

수집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소장품을 보존·관리하는 데 있다. 아무리 훌륭한 소장품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썩거나 화재로 소실되거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장마철이면 습기가 차지 않게 정기적으로 불을 펴주어야 하고 빈대나 좀 등 해충이 생기지 않게 농약을 살포해주고 화재나 도난이 없게 항상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1966~67년 여름에는 향토사를 연구한답시고 시흥·안양지방의 곳곳을 돌아다녔다. 도시락을 입에 대지 못하는 나는 主食으로 고구마와 음료수 대신 참외로 시장기를 때우며 마을의 유지나 연장자를 찾아 마을의 유래·전설·민담·사적지·유적지 등을 일일이 알아보고 향토사의 귀중한 자료인 토기·자기·기와장·민속품 등을 모아다놓았다.

한번은 고구마 먹은 것이 식중독이 되어 수암면 어느 야산에서는 꿈쩍도 못하고 뜬눈으로 하룻밤을 보내기도 하고 君子 어느 마을과 군용지에서는 수상한 사람으로 오인돼 곤욕을 치

르기도 했다.

이런저런 고생 끝에 갖가지 유물들이 '리어카'로 2대분이나 되었다. 비록 깨진 기와장이나 토기일망정 거기에는 우리 조상들의 일이 스며있다.

이렇게 온갖 어려움을 겪어가며 모은 유물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온 데 간 데 없어졌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식구들이 쓰지 못하는 폐물인줄 알고 신작로에다 버린 것이었다. 나중에 버린 곳을 찾아갔을 때에는 오고가는 차량으로 인해 이마 산산조각이 난 후였다. 나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 며칠간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밤잠까지도 이루질 못했다. 1972년 5월에는 내가 사는 論谷里와 국립중앙도서관과 자매결연을 맺고부터는 틈나는 대로 도서관에 가서 향토사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찾아내기도 했다.

또 신문, 잡지와 고서점을 순례하며 자료를 구했는데 앞으로 제반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鄉土誌를 책으로 펴낼 계획이다.

구한말에 判事를 지낸 權丙勳(『六書심원』의 저자)이란 분이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대화라고는 땅바닥에 글씨(한자)를 써가며 오직 六書를 설명하기만 하였다지만 하도 수집에 신경을 쓰다보니 잠자리에 누워서도 수집에 관한 잡다한 생각뿐이다.

어떤 때는 후회도 해본다. 그러나 시간 흘러갈수록 하나둘 쌓인 소장품이 이젠 두 개의 방안에 가득히 쌓인 것을 볼 때마다 자신만이 아는 희열을 느끼기도 한다. 千辛萬苦 끝에 귀중품을 입수했을 때와 다른 수집가에게는 없는 희귀한 것을 구했을 때의 기쁨, 그래서 수집은 계속하게 되는 지도 모른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매스컴'에 보도가 돼서 그런지 한 달에 평균 4~5건씩을 자료를 의뢰해 오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이를테면 분실이나 파손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興·野를 불문하고, 男女老幼의 차별을 두지 않고 자료요구에 응한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안되면 同好者를 찾겠다. 얼마 안 되는 소장품이지만 혼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회에 공개해서 동호자나 학도들로 하여금 함께 즐기고 연구하여 사회공익에 기여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나의 평소부터의 수집철학이다.

나는 그동안 수집생활을 하면서 친지나 친구들에게 굳게 다짐한 것이 있다. 그것은 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수집은 계속할 것이며, ② 남에게 팔지 않고, ③ 소장품을 후손에게 상속하지 않으며, ④ 나의 수집철학과 뜻이 같은 학교, 도서관, 공공기관 등이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모은 수집품을 아낌없이 넘겨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나의 신념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특히 신문은 수집을 함에 따라 수집비의 염출은 물론 관리면에서도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중간에 사람을 넣어 참된 인수자를 찾았으나 아직까지 인수자가 나타나질 않고 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내가 이만큼이라도 수집을 할 수 있게 된 이면에는 나 자신의 힘이라기보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후원해준 덕택이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혹시 구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도와준 사람들의 노고를 나는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朴有善 기자님(동아일보)을 위시하여 李秉烈씨(한국일보), 莫逆之友人 李應植(대한체육회), 趙充鏞(동아일보 안양지국), 李정주(大林産業), 裴明虎(예비군중대장) 등은 10여년간을 나의 수집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분들로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내가 죽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오직 軍, 軍, 軍을 생각할 것이다.」-맥아더-